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114-01

2008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08-3

www.ftc.go.kr

## 손해보험산업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114-01

2008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08-3

www.ftc.go.kr

## 손해보험산업과 경쟁정책

시장분석과 정 보 립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 목 차 ❧

I. 손해보험산업 개요 .....	1
1. 손해보험산업의 범위 .....	1
2. 손해보험산업의 특성 .....	3
II. 손해보험산업의 경쟁현황 .....	4
1. 시장구조 .....	4
가. 시장규모 .....	4
나. 유통구조 .....	9
다. 금융겸업화 및 종합화의 진행 .....	11
2. 사업자의 경쟁행태 .....	22
가. 가격경쟁 .....	22
나. 비가격경쟁 .....	26
다. 사업자단체 : 손해보험협회 .....	27
라. 사업자간 상호협정(자율규제) .....	31
3. 산업의 수익성 .....	33
가. 수익구조 및 수익성 지표 .....	33
나.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수익성 분석 .....	33
다.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 .....	34
라. 보험사별 영업실적 .....	37

Ⅲ. 정부규제 현황 .....	38
1. 진입 및 퇴출 관련 .....	38
가. 진입 관련 .....	38
나. 퇴출 관련 .....	40
다. 업무영역 관련 .....	41
2. 보험상품개발 관련 .....	42
가. 보험상품개발 절차에 대한 규제 .....	42
나.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 .....	42
3. 기타 사업활동 관련 .....	43
가. 자산운용 관련 규제 .....	43
나. 기타 .....	44
4. 과거의 규제개혁 실적 .....	46
Ⅳ. 해외사례 .....	48
1. 세계시장 규모 .....	48
2. 지역별 보험시장 동향 .....	50
가. 선진보험시장 .....	50
나. 신흥보험 시장 .....	51

3. 국가별 방카슈랑스 운용현황 .....	52
4. 각국의 보험규제체계 .....	55
가. 보험감독기구 및 금융거버넌스 규제 .....	55
나. 최저자본금 규제 .....	58
다. 생·손보겸영 및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	59
라. 과장 광고 관련 규제 시스템 .....	60
5.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사례 .....	62
 V. 경쟁 및 소비자이슈 도출 .....	65
1. 규제의 경쟁제한가능성 .....	65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가. 보험업 개시요건 중 자본금 및 기금 요건 .....	65
나. 보험업 허가요건 중 물적시설 요건 .....	66
다. 타업종 영위법인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	66
라. 보험업의 허가 .....	66
〈사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종사자수 제한 .....	71
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한도 .....	71
다. 제3보험 상품개발 제한 .....	72
라. 보험사의 업무위탁 제한 .....	72

2.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	74
가. 공정위 심결사례 분석 .....	74
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유형 .....	77
3. 소비자 보호 이슈 .....	87
가. 소비자피해 청구 현황 .....	87
나. 주요 소비자 이슈 .....	89
참고문헌 .....	98

## 표 차례

<표 1> 보험업의 구분 .....	1
<표 2> 보험상품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표 3> 손해보험산업 성장추이 .....	4
<표 4>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5
<표 5> 회사 종류별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	7
<표 6>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	7
<표 7> 손해보험사 점유율 변동 현황(수입보험료 기준) .....	8
<표 8> 국내 손보사의 시장집중도 지표변화 추이 .....	8
<표 9>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10
<표 10>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	10
<표 11> 유형별 방카슈랑스의 특징 .....	11
<표 12>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	12
<표 13> 판매제휴계약 체결 현황 .....	13
<표 14>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 현황 .....	14
<표 15>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실적 .....	14
<표 16> 회사 종류별 방카슈랑스 실적(수입보험료 기준) .....	14
<표 17>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현황 .....	19
<표 18> 공제기관 그룹별 수입공제로 및 총자산 .....	20
<표 19> 주요 공제 등 유사보험 영업실적 .....	20
<표 20> 영업보험료의 용도 및 산출방식 .....	22

<표 21>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 경위 및 내용 .....	23
<표 22> 참조손보험요율 공표대상 보험종목 .....	23
<표 23> 연도별 온라인 자동차보험 점유율 .....	25
<표 24>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 추이 .....	27
<표 25>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	34
<표 26> 손해보험사 전체의 연도별 경과손해율 .....	35
<표 27> 손해보험업 종류별 경과손해율 추이 .....	35
<표 28> 손해보험사 전체의 연도별 순사업비율 .....	36
<표 29> 보험종목별 순사업비율 .....	36
<표 30> 손해보험사별 영업실적(FY2007) .....	37
<표 31> 주요 규제개혁 추진실적 .....	47
<표 32> 세계 각국의 수입보험료 현황 .....	49
<표 33> 세계 보험산업 비교 .....	50
<표 34> 선진보험시장의 지역별 동향 .....	51
<표 35> 신흥보험시장의 지역별 동향 .....	51
<표 36> 주요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 현황 .....	52
<표 37> 유럽의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점유율(2005년) .....	53
<표 38> 서울보증보험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 .....	67
<표 39> 공정위 조치실적 .....	74
<표 40> 주요국의 보험업 집중도 현황 .....	77
<표 4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그룹의 계열손보사 물량 몰아주기 실태 ...	80
<표 42> 특별이익제공 등 관련 검사결과 조치 사례 .....	84



<표 43> 연도별 상담·피해구제 현황 .....	87
<표 44> 손해보험 종류별 피해청구 현황 .....	87
<표 45> 피해유형별 현황 .....	88
<표 46> 판매방법별 불완전판매 현황 .....	89
<표 47> 연도별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현황, 금감원 .....	95
<표 48>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소비자원 ...	95
<표 49> TV 홈쇼핑보험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소비자원	95
<표 50> 최근 손보협회의 광고심의 현황 .....	97

## 그림 차례

<그림 1> 손보 대형 3사의 상품부문별 시장점유율 변화 .....	9
<그림 2> 손보사의 당기순이익 .....	16
<그림 3>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 .....	16
<그림 4> 유럽국가별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비중 .....	53
<그림 5>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한 규제감독체계 .....	57



## 손해보험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요약)

### 1. 손해보험산업 개요

- ☐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분류되며 손해보험은 일반(보험기간 : 3년 이내), 장기로 구분
- ☐ 국내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규제가 많고, 수익성이 시장금리와 주식 시장 동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

### 2. 손해보험산업 경쟁상황

#### 〈시장구조〉

-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이래로 6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시장에서 유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4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71.0%(삼성화재해상 28.4%, 현대해상 15.3%, 동부화재해상 14.2%, LIG 13.1%)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51.2%  
(삼성화재해상 28.4%, 동부화재해상 14.2%, 한화손해 2.8%, 제일화재해상 3.3%, 롯데손해 2.5%)
- ☐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설계사 등 대면판매와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형태가 있으며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경쟁상황〉

- ☐ 과점적 시장구조, 정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

-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통경로 단축 등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경쟁이 제고되고 있음

#### 〈산업의 수익성〉

- 대부분 보험영업부문\*은 적자이나 투자영업부문의 흑자를 통해 총영업이익\*\*의 흑자를 유지

\* 보험영업이익 = 보험영업수익 - 보험영업비용(발생손해액+순사업비+ 각종 적립금 증가액 등)

\*\* 총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손해보험사 전체의 경과손해율\*은 2002년에 크게 감소한 후 안정되는 추세이고 순사업비율\*\*은 24% 수준

\*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순사업비율 = (지급경비 - 수입경비) / 보유보험료

### 3. 해외사례

- 2007년 세계 보험시장규모는 4조 609억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3.3%)
  - 우리나라는 보험료 규모(1,170억 달러)기준 세계7위, 보험밀도\*(2,384달러) 기준 세계 21위, 보험침투도\*\*(11.8%)기준 세계 5위
  - \*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
- 미국은 1945년 McCarren-Ferguson법 제정으로 주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허용
-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제정으로 보험감독국, 증권투자위원회 등 9개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청으로 일원화
- 일본은 1998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영역별 감독기관들을 금융감독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 4. 경쟁 및 소비자 이슈 도출

#####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사업개시를 위한 자본금 및 기금 요건
    -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함
    - ⇒ 미국·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요건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진입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보험업 허가요건 중 물적시설 요건
    -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물적요건(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을 갖추어야 함
    - ⇒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 시설 및 전산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아니함
  - 타업종 영위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타업종 영위 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속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구비해야 함
    - ⇒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타업종 영위 법인을 다른 법인과 차별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
  - 보증보험시장의 진입제한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 필요
    - ⇒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바, 보증보험시장의 경쟁도입방안 검토 필요

□ 사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종사자수 제한 및 보험상품 판매한도 제한

- 점포별로 2인 이하의 모집종사자를 두도록 규정
- 특정보험사의 상품은 25% 이내에서, 계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는 합산하여 33% 이내에서 판매가능

⇒ 점포별 모집종사자를 2인으로 제한하거나 보험상품의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우려

○ 제3보험 상품개발 제한

- 보험회사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보장성보험에 한해서만 허용

⇒ 다양한 상품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선택권을 축소할 우려

○ 보험사의 업무위탁 규제

-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에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포함

⇒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의 아웃소싱 가능성을 축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저해할 우려

규제의 폐지 검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당해 규제목적  
을 달성하면서도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

- ☐ 과점적 시장구조,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

※ 2000년 이후 부당공동행위로 규제된 사례는 5건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계열 손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발생가능성

※ '03~'06 1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전체 기업보험의 92% 정도를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공급 ['07, '08 공정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기업보험 분야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발생 가능성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보험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시장의 리베이트 규모는 약 5,000억원에 이를

<소비자 보호 이슈>

- ☐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음

※ 2007년도 한국소비자원의 불완전판매관련 피해구제는 280건으로 보험 분야에서 전체 피해구제 사례의 24.9%를 차지

- ☐ 은행대출 등과 연계한 구속성 보험판매 발생가능성

※ 보험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소비자의 방카슈랑스 보험가입 행태 및 구매영향에 관한 연구(2008년 8월)」는 보험가입시 이루어지는 은행의 대출연계 또는 강압판매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제기

- ☐ 보험상품의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 금감위가 발표한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2007. 10. 3.)」에 따르면 최근 과장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I. 손해보험산업 개요

### 1. 손해보험산업의 범위

- ☐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산업(보험업법 제2조)
  - 보험업은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
- ☐ 보험은 다수인의 위험을 집적함으로써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하여 감소시키는 위험인수기능과 수입된 보험료를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

<표 1> 보험업의 구분

구 분	정 의	보 험 종 목
생명보험업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생명보험 ○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업	우연한 사고(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화재보험 ○ 해상보험(항공·운송 포함) ○ 자동차보험 ○ 보증보험 ○ 재보험 ○ 책임보험 ○ 기술보험 등
제3보험업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으로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등

- ☐ 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일반손해보험은 다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
  -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 산출기초에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의미하며,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되,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음

<표 2> 보험상품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	해당상품명	해당상품 내용	비고
생명보험	생명보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을 제외한 보험	생보사 취급
	연금보험	노후 또는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시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기타 생명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손해보험	화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보사 취급
	해상보험 (항공·운송 보험 포함)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성 등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운송보험은 보험종목 구분시 해상보험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증보험	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기타의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 전가하는 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술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해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보사 취급
	도난보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유리보험	유리가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동물보험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원자력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비용보험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타 손해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구분	해당상품명	해당상품 내용	비고
제3 보험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	생·손보사 모두 취급
	질병보험	질병의 이환을 보험사고로 하여 치료비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고려한 일정금액의 급부를 보장	
	간병보험	질병 등으로 인해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호상태에 처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	
	기타 제3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타법 률에 의한 보험	세제적격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	생·손보사 모두 취급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손해보험산업의 특성

- ☐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
  - 자동차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상품<sup>1)</sup>이 상당부분을 차지
    - '07년도에 양 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sup>2)</su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 (자동차보험 31.0%, 장기상해보험 11.9%)
- ☐ 보험의 공공성에서 기인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경쟁을 제한
  - 보험계약은 보험사-보험계약자간의 개별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짐
- ☐ 수익성이 시장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의해 크게 좌우
  - 손해보험의 경우 주요 수익창출원인 자산운용부문의 성과와 수입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수익이 금리와 주식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음

1)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

2)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 합계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수재보험료를 더하고 출재보험료를 제외한 부분

## II. 손해보험산업의 경쟁현황

### 1. 시장구조

#### 가. 시장규모

- ☐ 2008년 3월말 현재 27개 회사(외국회사 국내지점 11개 포함)가 영업 중이며, 총 수입보험료는 33조 3,007억원
- ☐ 손해보험산업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 최근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이 크게 확대

<표 3> 손해보험산업 성장추이

(단위 : 건, 억원)

연 도	계약건수	보험가입금액	수입보험료	지수(%)
1996	24,447,779	12,419,647	131,936	100.0
1997	23,380,556	18,673,506	159,624	121.0
1998	33,675,538	13,672,335	141,407	107.2
1999	40,136,239	16,404,595	144,130	109.2
2000	43,331,587	26,140,547	163,838	124.2
2001	46,903,111	27,987,076	180,847	137.1
2002	55,427,470	32,560,108	200,796	152.2
2003	53,184,025	39,295,666	208,982	158.4
2004	56,634,107	36,508,538	226,983	172.0
2005	57,908,587	47,632,825	251,503	190.6
2006	69,347,083	56,534,601	289,581	219.5
2007	61,317,687	73,308,046	333,007	252.4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2007.4.1.~2008.3.31.동안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33조 3,007억원 중, 장기손해보험이 16조 3,435억원(49.1%), 자동차보험이 10조 3,364억원(31.0%)을 차지
  - 2007년도 수입보험료는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매출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6.1% 증가
  - 당기순이익 규모는 1조 6,652억원로서 전년대비(1조 778억원) 54.5% 증가
  - 2007년 순보험금 규모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1조 2,538억원이고 순사업비는 16.2% 증가

<표 4>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화재	3,219	1.6	3,160	1.5	2,937	1.3	3,244	1.3	3,133	1.1	3,038	0.9
해상	5,606	2.8	5,242	2.5	5,071	2.3	5,276	2.1	6,324	2.2	6,462	1.9
특종	17,531	8.7	18,741	9.0	21,181	9.4	23,520	9.5	25,843	9.0	38,421	11.5
보증	9,362	4.6	9,419	4.5	9,018	4.0	10,066	4.1	11,427	4.0	8,291	2.5
자동차	79,138	39.2	79,471	38.1	83,877	37.2	85,631	34.6	95,397	33.2	103,364	31.0
장기	80,163	39.7	85,828	41.1	96,393	42.8	112,608	45.6	136,845	47.7	163,435	49.1
개인연금	6,786	3.4	6,873	3.3	6,799	3.0	6,977	2.8	7,975	2.8	9,994	3.0
합계	210,806	100.0	208,733	100.0	225,276	100.0	247,322	100.0	286,943	100.0	333,007	100.0

※ 자료 : 보험개발원

- 회사 종류(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 등)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4사(삼성, 현대, 동부, LIG) 및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축소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외국사의 지속적인 국내 보험 업계 진출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로부터 기인<sup>3)</sup>

- 세계3대 보험사의 하나인 프랑스 AXA가 2007년 3월 교보자동차 보험을 인수
- 2007년 12월 독일 보험종합금융그룹 Munich Re 산하 원수보험사인 ERGO가 다음 다이렉트 보험의 지분 65%를 인수
- 독일 Munich Re 그룹의 전문법률비용보험사인 DAS가 보험업 예비허가를 2007년 9월 금융위원회에 신청
- 2007년 9월 미국의 Genworth 모기지보험이 한국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음
- 2008년 3월 모기지보험 전문사인 AIG United Guarantee가 보험업 인가를 받음
- 1998년 3월 보험감독원에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을 제정하여 온라인 보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자동차 보험 등 온라인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현재까지 4개의 온라인 자동차보험사<sup>4)</sup>가 설립
- ※ 기존 손해보험사중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조기 진출한 제일화재 및 롯데손해보험 등은 온라인 판매비중이 2001년 0.4% 수준에서 2004년 7.2%, 2007년도 16.6% 로 증가
- ※ 특히 대부분의 소형사에서는 자사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소형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간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영업

---

3) 손해보험협회, 2007년 손해보험 10대뉴스, 월간손해보험, 2008. 1. p. 76

4) 교보자동차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4개사)

<표 5> 회사 종류별<sup>5)</sup>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상위 4사	68.2	70.0	70.6	71.1	71.2	71.3	71.8
국내중소형사	27.3	24.6	24.6	23.1	21.1	20.7	21.4
전업사*	3.9	4.7	4.7	4.0	4.0	6.6	5.3
외국사	0.6	0.7	0.7	1.2	1.3	1.4	1.5

\*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재보험(코리안리), 온라인 자동차보험(교보,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 2007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71.0%, 보유 보험료<sup>6)</sup> 기준으로 73.87%

<표 6>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2007년 말 기준)

구 분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자산	자본금	당기 순이익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삼성화재해상보험	94,699	28.4	84,230	29.97	207,405	265	4,765
현대해상화재보험	53,450	16.1	43,945	15.64	84,921	447	1,715
동부화재해상보험	47,135	14.2	43,330	15.42	81,064	354	2,716
LIG해상화재보험	43,739	13.1	36,095	12.84	73,063	300	1,24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5,790	7.7	22,910	8.15	45,645	619	711
제일화재해상보험	10,936	3.3	9,101	3.24	16,173	1,339	26
한화손해보험	9,272	2.8	7,696	2.74	14,966	1,524	398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9,880	3.0	8,201	2.92	11,757	1,694	-756
롯데손해보험	8,324	2.5	7,573	2.69	12,103	421	21
그린화재해상보험	7,050	2.1	5,935	2.11	10,291	716	216
기타(온라인사, 외국사 등)	22,732	6.8	12,023	4.28	100,543	20,320	5,593
합 계	333,007	100.0	281,039	100.0	-	-	-

※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2008년 3월 현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5개사 (시장점유율은 51.2%)

5) 대형사(4)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국내중소형사(6) : 메리츠, 한화손해, 롯데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전업사(6) : 코리안리, 서울보증, 교보,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외국사(11) : AHA, ACE, 패터럴, FARIC, 스위스리, 뮌헨리, 켈른, 스코어리, RGA, 미쓰이, 동경해상

6)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위험회피를 위해 재보험사에 넘긴 것과 해약환급금을 뺀 것임

&lt;표 7&gt; 손해보험사 점유율 변동 현황(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6		2005		200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삼성화재해상보험	94,699	28.4	82,426	28.7	72,562	29.3	68,049	30.2
현대해상화재보험	53,450	16.1	42,301	14.7	35,851	14.5	31,671	14.1
동부화재해상보험	47,135	14.2	40,514	14.1	34,849	14.1	30,444	13.5
LIG해상화재보험	43,739	13.1	39,247	13.7	34,472	13.9	30,899	13.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5,790	7.7	21,802	7.6	18,769	7.6	16,948	7.5
제일화재해상보험	10,936	3.3	9,625	3.4	8,579	3.5	8,441	3.7
한화손해보험	9,272	2.8	8,365	2.9	8,686	3.5	8,200	3.6
한국쌍용화재해상보험	9,880	3.0	7,252	2.5	7,500	3.0	7,174	3.2
대한화재해상보험	8,324	2.5	7,113	2.5	5,443	2.2	5,110	2.3
그린화재해상보험	7,050	2.1	5,244	1.8	3,634	1.5	3,407	1.5
기타(온라인사, 외국사 등)	22,732	6.8	23,054	8.3	16,977	6.9	15,966	7.1
합 계	333,007	100.0	286,943	100.0	247,322	100.0	225,276	100.0

※ 자료: 손해보험협회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1998년 이래로 대형사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 가능<sup>7)</sup>

&lt;표 8&gt; 국내 손보사의 시장집중도 지표변화 추이

구 분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HHI <sup>8)</sup>	1,449	1,511	1,643	1,684	1,773	1,789	1,797	1,778	1,741	1,654
CR1(%)	27	28	30	31	33	33	33	32	31	30
CR3(%)	55	57	60	60	62	62	62	62	62	61

※ 자료: 보유보험료 기준, 예금보험공사 회사별 주요재무현황 참고

- 손보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의 자동차, 장기보험 등 주요 상품 시장별 점유율이 각각 50%~60% 수준으로 1998년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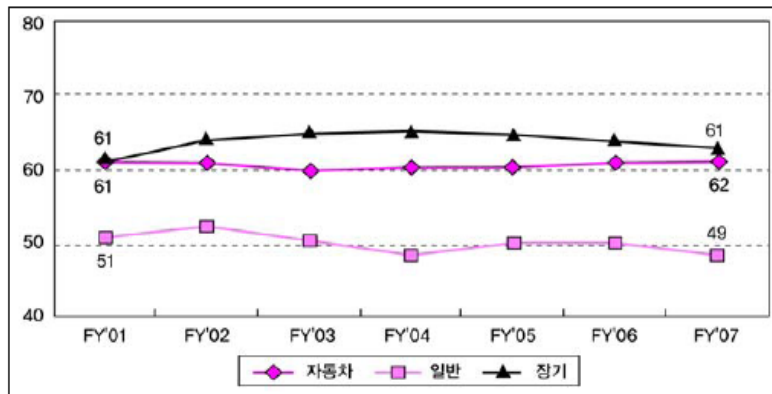
7) 원선희, 국내 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추이 및 전망,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 2008년 여름호, p.58

8)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1,800이상 “집중”, 1,000~1,800 “다소집중”, 1,000미만 “경쟁”)  
CR<sub>k</sub> (Concentration Ratio):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



<그림 1> 손보 대형 3사의 상품부문별 시장점유율 변화

(%)



※ 자료: 금융리스크 리뷰, 2008년 제5권 제2호

- 대형사가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시장집중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각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명칭, 보상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여 상품차별화 정도가 어려우므로 중소형사가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외국계 손보사는 전국적인 보상조직 구축의 어려움 등 국내 영업상의 한계로 인해 시장점유율 개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나. 유통구조

- 보험상품 판매는 회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대면조직을 통하거나 텔레마케팅(TM),<sup>9)</sup> 사이버몰(CM),<sup>10)</sup> 홈쇼핑판매 등 비대면조직을 통해 이루어짐

9) 본사 및 대리점 등의 모집조직에서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실적

10) 본사 및 대리점 등의 모집조직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실적

<표 9>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sup>11)</sup>

(단위: 억 원, %)

구 분	대면조직		TM		CM		합 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5년	239,866	94.1	13,378	5.2	1,725	0.7	254,969	100.0
2006년	273,307	92.7	19,572	6.6	1,888	0.6	294,767	100.0
2007년	309,057	91.6	26,045	7.7	2,161	0.6	337,263	100.0

※ 자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현황통계

-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설계사에 의한 판매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방카슈랑스 중 은행을 통한 판매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계약의 은행 판매 비중은 2004년 99.0%, 2005년 98.9%, 2007년도 99.8%

&lt;표 10&gt;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보험료	비율	보험료	비율	보험료	비율	보험료	비율	보험료	비율
회사직급	19,323	11.7	18,559	11.2	30,336	12.2	36,508	12.7	42,726	12.7
설계사	74,465	35.7	80,439	35.5	89,616	35.9	102,379	35.6	113,427	33.6
대리점	105,607	50.6	112,552	49.7	117,211	47.0	131,298	45.6	158,721	47.1
중개사	1,791	0.8	2,123	0.9	2,677	1.1	2,470	0.9	2,882	0.9
방카슈랑스	813	0.4	4,538	2.0	8,370	3.4	13,907	4.8	17,724	5.3
공동인수	1,727	0.8	1,468	0.6	1,318	0.5	1,398	0.5	1,784	0.5

※ 자료: 손해보험협회, 월간 손해보험통계

11) 원수보험료는 원수보험계약에 의해서 수입된 보험료로서 수입보험료+출재보험료-수재보험료에 해당

\* 출재보험료란 보험회사 자신이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지급하는 보험료

\* 수재보험료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함으로써 얻는 수입

## 다. 금융겸업화 및 종합화의 진행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 (1) 의의 및 도입배경

- ☐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복합상품을 지칭함
  - 보험, 예금,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정보 및 개인자산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청하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로 은행연계보험이라고도 함
- ☐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를 통한 금융업종간 경쟁촉진으로 금융 서비스의 개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의 편익증진,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
  - 우리나라는 은행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2003년 8월에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 방카슈랑스의 유형

- ☐ 방카슈랑스는 크게 판매제휴 방식, 합작회사 방식,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구분

<표 11> 유형별 방카슈랑스의 특징

유형	특 징	장 점	단 점	비 고
판매 제휴	· 은행이 보험대리 점 역할 수행	· 시행기간 단축 · 자본투입 불요	· 신상품 도입의 유연성 부족 · 업종간 갈등 심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합작 회사	· 은행과 보험사 간 합작투자	· 보험노하우 전수	· 장기적으로 경영상 이해 상충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자회사 설립	· 은행이 신규보 험자회사 설립	· 업종간 갈등 우려 해소	· 자본투입 등 비용 소요	프랑스 벨기에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방카슈랑스 발전방향, 2007)

## (3) 추진 현황

- 우리나라 방카슈랑스는 개인저축성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허용
- 2003년 8월 개인연금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대해 최초로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이후, 2005년 4월에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2006년 10월에는 만기환급형 제3보험으로 확대
  - 2005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51.5%, 손해보험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36.1%에 대해 방카슈랑스가 적용됨
  - 2008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가 허용될 계획(제4단계 방카슈랑스)이었으나, 2008년 3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을 유예

&lt;표 12&gt;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단위 :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행 시기	2003년 8월	2005년 4월	2006년 10월	2008년 4월	추후 검토
생명 보험	○ 개인저축성보험 (연금, 교육, 생사 혼합보험) ○ 신용생명보험	○ 순수보장성 (소멸형) 상품 (특약부 제외)	○ 환급형 상품 (특약부 제외)	○ 일반개인보장성 보험(CI보험, 중 신보험 등)	기타 보험상품
비중	38.0	0.6	12.9	30.9	17.6
손해 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주택화재보험 ○ 개인상해보험 등	○ 순수보장성 (소멸형) 상품 (특약부 제외)	○ 환급형 상품 (특약부 제외)	○ 일반장기보장성 보험 ○ 개인 자동차 보험	기타 보험상품
비중	15.4	2.2	18.5	40.2	23.7

\* 주 : 비중은 FY2005 수입보험료 기준

- 2008년 3월말 현재 110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
- ※ 은행 16개, 증권회사 20개, 상호저축은행 72개, 카드회사 2개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건수는 총 618건\*으로 생명보험사와의 체결건수(336건)가 손해보험사(282건)보다 많음
- ※ '07.3월말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건수(575건)와 비교하여 43건(7.5%p) 증가
-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업무제휴가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3> 판매제휴계약 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07.3월말 기준					2008년 3월말 기준					증감
	은행	증권	저축 은행	신용 카드	계	은행	증권	저축 은행	신용 카드	계	
생보사	161	65	73	10	309	178	73	72	13	336	27
손보사	126	50	81	9	266	134	50	89	9	282	16
합 계	287	115	154	19	575	312	123	161	22	618	43

※ 자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2008. 8. 4.)」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2007.4.1.~2008.3.31. 기간 중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료 수입은 총 10조 3,957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 7,121억원) 보다 34.8%p(2조 6,836억원) 증가

\* 생·손보 전체 보험료 수입(107조 7,548억원)의 9.6%

#### (4) 방카슈랑스와 손해보험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별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은 은행이 10조 2,346억원\*으로 전체 판매금액의 98.5%로 대부분을 차지

\* 증권회사: 1,593억원(1.5%), 상호저축은행: 18억원(0.02%)

-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실적은 1조 7,724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

&lt;표 14&gt;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4.1.~2007.3.31.			2007.4.1.~2008.3.31.		
	생 보	손 보	계	생 보	손 보	계
은 행	62,382	13,885	76,267	84,652	17,694	102,346
증 권	824	12	836	1,574	19	1,593
저축은행	8	10	18	7	11	18
계	63,214	13,907	77,121	86,233	17,724	103,957

※ 자료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이 생명보험보다 미미한 수준이나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수입보험료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lt;표 15&gt;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수입보험료	813 (0.4)	4,538 (2.0)	8,369 (3.4)	13,907 (4.8)	17,724 (5.3)

※ 자료 : 금융감독원

- 대형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lt;표 16&gt; 회사 종류별 방카슈랑스 실적(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상위4사	85.9	81.9	77.5	80.4
중소형사	13.7	16.9	22.4	19.5
외국사	0.4	1.2	0.1	0.1

(5)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경우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일부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sup>12)</sup>
  - 금융감독원의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2006. 2. 21.)」에 따르면 2004년에 연금보험은 2.8%, 기타 저축성보험은 2.5%의 보험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강화로 각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인하조정
    -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방카슈랑스상품의 예정신계약비 산정 기준을 일반보험 상품 예정신계약비의 70/100(일반손보상품은 85/100) 범위내에서 설정
- 방카슈랑스 실시 이후 보험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FY2007 장기저축성보험시장 규모가 FY2002에 비해 약 2.9배 가량 확대
  - Financial Insight의 2006년 연구조사 「Bancassurance in Asia/Pacific」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고객의 약 1/3가량이 해당 보험시장의 신규고객인 것으로 나타남<sup>13)</sup>
- 고용창출효과와 관련하여 방카슈랑스 실시이후에도 보험설계사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리점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sup>14)</sup>
  - 손해보험 설계사는 2002년 말 기준 56,762명에서 2006년 말 기준 76,390명으로 증가

12) 금융감독원,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보도자료, 2006. 2. p. 10

13)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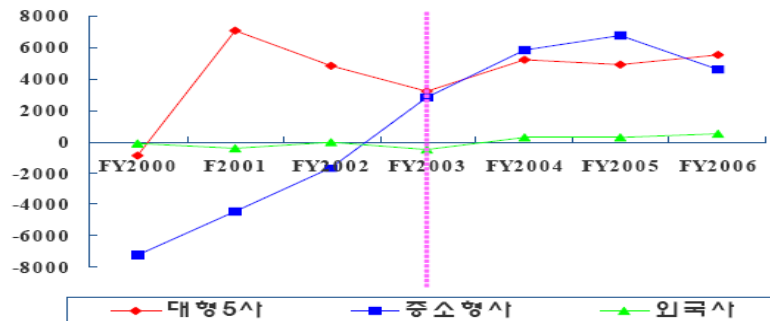
14) 금융감독원,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보도자료, 2006. 2. p. 9

- 보험대리점은 개인대리점이 법인대리점으로 흡수되는 등으로 인해 '06년 말 기준으로 5만여개로서 '02년 이후 매년 4% 내외 감소

□ 중소형 손보사가 FY2003을 기점으로 흑자세로 전환되었고 지급여력 비율<sup>15)</sup> 역시 증가세로 반전하였는바, 방카슈랑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지 아니함<sup>16)</sup>

<그림 2> 손보사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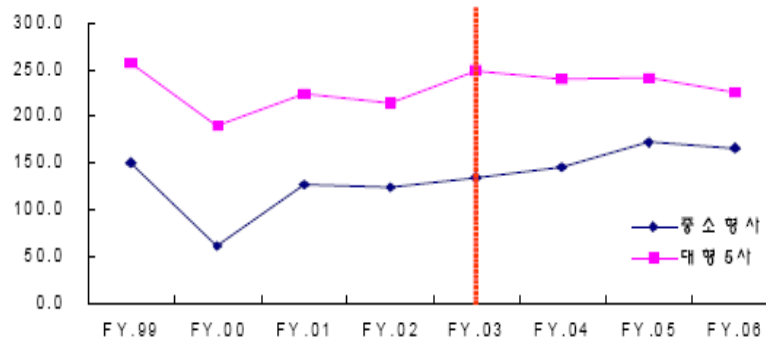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3>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

(단위: %)



※ 자료: 개별손보사 경영공시

15)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16)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p. 40



〈자본시장통합법<sup>17)</sup> 시행〉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5개 법률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을 통합<sup>18)</sup>
    - 금융겸업화에 대응하여 동일기능에 대해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축소하고 금융규제를 일괄정비하기 위한
    -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포괄주의)
    - 금융투자업을 6개 단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주자자문업, 신탁업)로 단순화하고 상호 겸영허용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과 기능적 측면에서 경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이 가능
    - 자본시장통합법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금융투자회사도 재해, 범죄발생률, 날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위험관리기능을 가진 파생상품 취급가능
- ⇒ 기업정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경쟁

17) 정식법률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약칭함

18) 나머지 9개 법률은 자본시장통합법에 통합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

## (2)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산업

- 보험업은 이미 대형화된 은행업\*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후 자산관리 및 신탁업 겸업이 허용되어 금융투자업으로 확대될 증권업 등 타 금융산업 대비 상대적 위축 가능성 증대<sup>19)</sup>

\* 2007년 3월말 은행, 증권, 보험산업 총자산 중 은행이 77.1% 차지<sup>20)</sup>

- 금융투자회사들이 낄씨파생상품, 대재난 파생상품 및 채권 등 미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상품과 경쟁 예상
  -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채무유예서비스 상품(DCDS)은 신용보험과, 낄씨파생상품은 낄씨보험과 경쟁함으로써 보험상품의 위축이 예상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증권회사에 대한 인수·합병,<sup>21)</sup> 외국 글로벌 대형투자은행의 공격적 시장참여,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업무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 금융산업 개편속에서 대형보험회사는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고자 할 것이나 소형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그룹은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의 확대와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종합 금융그룹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19) 류근옥,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겸업화와 손보사의 대응방안, 월간손해보험, 2006. 6. p. 19

2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의 새로운 접근방식, 심포지움, 2007. 11. p. 51

21)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이후 영국의 증권회사들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공략을 받아 인수·합병되는 소위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가 나타나면서 증권산업이 재편됨  
윔블던 효과란 금융시장을 개방하자 외국인들이 몰려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차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1986년 대치 영국총리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한 결과 영국 증권회사들이 줄도산하고 미국과 유럽 자본이 절반 이상의 금융회사들을 차지하는 현상을 칭함

〈유사보험과의 경쟁〉

(1) 국내 유사보험의 운용현황

- 유사보험이란 통상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험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영위하는 보험 유사 사업을 의미하며 소규모의 상호보험조합, 공제 등이 있음<sup>22)</sup>

\* 우체국, 농협, 공제조합 등

- 공제 등 유사보험 상품은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출금을 부담하고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집단적 위험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sup>23)</sup>
- 다만 운영주체, 준거법률, 가입대상 등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음

<표 17>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현황

구 분		대 상 기 관	기관수
주요공제 <sup>1)</sup>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5
기 타 공 제 <sup>2)</sup>	생명	대한교원공제	20
	보증	건설공제, 기계공제, 부동산중개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 엔지니어링공제, 전기공사공제, 전문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조선공업협동조합공제	
	육상 운송	전국개인택시공제, 전국버스공제, 전국전세버스공제, 전국택시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일반 손해	대한의사협회공제, 학교재해복구공제, 한국선주상호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 한국해운공제	
회비제 공제 <sup>3)</sup>		경찰공제, 관우회, 군인공제, 담배인삼공제, 대한소방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 세우회, 철도청공제	8
합 계			33

1) 불특정다수(일반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공제

2) 조합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타 공제

3) 사우회적 성격을 가지고 공제로 대신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비제 공제

22) 미국 뉴욕주 보험법 제4501조에서는 우애조합 또는 공제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의 정의에 대하여 “자본금을 갖지 않고 비영리로 조합원 및 공제금 수취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조직·운영되는 법인조직의 조합, 교단 또는 중앙회로서 조합의 지부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 연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단체”로 규정

23) 이재복, 국내 유사보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월간 손해보험 2008. 6. p. 11~15

- 전체 유사보험 중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주요 공제가 91.4%를 차지

&lt;표 18&gt; 공제기관 그룹별 수입공제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2001년 기준)

구 분	수 입 공 제 료		총 자 산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주요 공제	143,162	91.4%	385,330	76.9%
기타 공제	8,058	5.1%	80,557	16.1%
회비제 공제	5,496	3.5%	35,060	7.0%
합 계	156,716	100%	500,947	100%

- 전체 보험시장 중 주요 유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12.4%를 차지

&lt;표 19&gt; 주요 공제 등 유사보험 영업실적

(단위: 수입보험료, 억 원, %)

구 분		1997년	2002년	2004년	2006년
주요 유사 보험	농협	32,893 (4.5%)	68,422 (8.3%)	57,458 (6.4%)	66,184 (6.1%)
	수협	1,637 (0.2%)	3,020 (0.4%)	2,369 (0.3%)	3,284 (0.3%)
	신협	1,301 (0.2%)	2,129 (0.3%)	2,281 (0.3%)	2,279 (0.2%)
	새마을금고	6,714 (0.9%)	6,541 (0.8%)	7,264 (0.8%)	8,651 (0.8%)
	우체국	28,321 (3.9%)	52,397 (7.4%)	63,962 (7.1%)	54,622 (5.0%)
	소계	70,866 (9.8%)	132,509(16.1%)	133,334(14.8%)	135,020(12.4%)
민영보험		652,742(90.2%)	692,476(83.9%)	769,695(85.2%)	951,492(87.6%)
합 계		723,608 (100%)	824,985 (100%)	903,029 (100%)	1,086,512 (100%)

(2) 유사보험과 보험산업

- 농협공제 등 주요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민영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나 보험업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sup>24)</sup>
  - 공제사업은 전문 감독기관이 없고\* 주무관청의 감독상 전문성 부족, 소비자문제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 현재 각각의 공제사업별로 감독기관이 25개 법률에 의해 농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17개 정부부처(국회, 감사원 포함) 및 관련기관 등으로 다원화
  - \* (예) 농업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은 농림부, 수산업협동조합은 국토해양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 등 감독기관이 상이
- 공제사업의 경우 정관이나 공제료, 배당금, 재산운용, 모집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의 소지<sup>25)</sup>
  - 민영보험의 경우 허가, 보험모집, 약관과 보험요율, 자산운용, 손해사정, 계약자보호, 지급능력 유지 및 보험회사의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험사업의 전반에 걸쳐 보험업법에 의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짐

24)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월간 손해보험, 2008. 8. p. 20

25) 주한 EU 상공회의소는 2002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유사보험사의 불공정경쟁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기관에 대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전통적인 보험회사와 동일한 제약 및 지급여력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하며 최소한 광고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 2. 사업자의 경쟁행태

### 가. 가격경쟁

#### (1) 보험료 결정방식

□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율)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있음

○ 실제 적용보험료(최종보험료)는 각 손해보험사가 금융위에 신고한 영업보험료(율)에 개별 할인·할증률(SRP)<sup>26)</sup>을 반영하여 산출

- 영업보험료(율): 각 손해보험사가 기초서류 변경을 통하여 금융위에 신고 또는 제출

※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

- 실제 적용보험료: 영업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률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최종 보험료

<표 20> 영업보험료의 용도 및 산출방식

구 분	용 도	산 출 방 식
순보험료 (율)	보험금의 지급	○ 위험보험료(예정위험율 <sup>1)</sup> +저축보험료(예정이율 <sup>2)</sup> ) ○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금융위에 신고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참고하여 각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부가 보험료(율)	인건비·물건비 등 영업비 지급	○ 예정사업비율 <sup>3)</sup> +예정이익율 <sup>4)</sup>

1) 예정위험율: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높을수록 보험료 상승)

2) 예정이율: 보험료에 의한 일정 수익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이율(높을수록 보험료 인하)

3) 예정사업비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 들이는 여러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예정이익율: 비상위험에 대비한 적립 준비금 재원

26) 2002년 4월 부가보험료를 자유화 이후 보험개발원이 참조 순보험요율만 제시하게 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 할인·할증율(SRP: Schedule Rating Plan)을 도입·운영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손해보험사가 보험종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4~5월 금감원에게 기초서류변경시 사업방법서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 신고

(2) 보험료 자유화 경위 및 내용

- 1994년 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영업보험료(율)를 산출하고 각 손해 보험사가 이를 기본요율로 하여 일정범위(±5%)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범위요율제 운용
- 2002년 4월 보험료 산출요소 중 사업비 집행실적이 반영된 부가율을 각 손해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유화 조치  
(참조순율 의무사용을 폐지하여 보험료 완전 자유화)

<표 21>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 경위 및 내용

구 분	시행시기	주 요 내 용
고정요율제 도입	1994년 이전	○ 보험개발원이 재무부에 신고한 영업보험요율(순율+부가율)을 고정요율로 사용
범위요율제 도입	1994년 4월	○ 보험개발원이 영업보험요율(순율+부가율)을 산출하고, 각 손보사는 이를 기본요율로 하여 일정범위(±5%)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범위요율제 확대	1997년 4월	○ 기본요율 대비 ±15%(가계성), ±30%(기업성)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부가보험료(율) 자유화 및 참조순보험요율제 도입	2000년 4월	○ 부가보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사용토록 함으로써 회사별·종목별 가격 경쟁 유도 ○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율 의무 사용
순보험료(율) 자유화	2002년 4월	○ 참조순율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영업보험요율을 완전 자유화

\* 참조순보험요율 :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위에 신고한 순보험요율로서 다음과 같은 종목에 대해 공표

<표 22> 참조순보험요율 공표대상 보험종목

구 분	보 험 종 목
일반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무배당기준), 질병사망(무배당기준), 기타피부암이외의 암발생(무배당기준), 비용손해관련(무배당기준), 화재손해(건물1급)(무배당기준), 도난손해(무배당기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무배당기준), 자녀배상책임(무배당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3) 보험료 추이

-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직판시장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상승
- ☐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시중금리추이,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
  - 2005년 12월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손보사들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예정이율 인상)
  - 2006년 4월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손해보험 참조순보험율을 반영해 암보험료를 남성은 인하하고 여성은 인상
  - 2007년 10월~11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손해보험사 자체적으로 산출한 경험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 조정

(4) 가격 경쟁 정도

- ☐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가격담합 유인이 매우 높음
  - 각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명칭, 보상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여 상품차별화 정도가 매우 낮은바, 보험계약자의 선택이 거의 보험가격에 의해 좌우
- ☐ 한편, 보험료 책정에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행정지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 정도는 심하지 않음
- ☐ 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및 보험업 감독규정 7-46조상품의 비교·공시 등에 근거한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는 보험사간의 정보교환 채널로서 작용하여 가격경직성을 초래할 우려
  - 비교공시제도는 손해보험사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정보를 통합·공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상품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정보를 손보험회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공시

〈자동차보험〉

- 현재 자동차보험시장은 4개 온라인전업사와 7개 온·오프라인 겸업사, 2개 오프라인 전업사가 경쟁<sup>27)</sup>
- FY2007 기준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저렴한 가격, 인터넷 등 기초 인프라의 발달 등에 기인하여 전체 자동차 보험시장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

<표 23> 연도별 온라인 자동차보험 점유율

연 도	2001	2003	2005	2007
점유율	0.4%	4.5%	10.0%	16.6%

- 자동차보험료는 연령, 차종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라인보험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며, 같은 온라인보험간 또는 오프라인 보험간에도 보험료 차이가 큼
- 온라인보험의 경우, 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절감되므로 낮은 보험료 책정 가능
- 보험사마다 주력 고객군이 다르며, 주력 고객군의 보험료는 여타 고객군의 보험료보다 싸게 책정
- 2007년에 할인·할증제도 변경,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인상, 차량 모델별 차차보험료 차등화 등 자동차보험체계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별 가격차가 커짐

27) - 온라인 전업 : 교보자동차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4개사)  
 - 온·오프라인 겸업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동부화재(7개사)  
 - 오프라인 영업 : 삼성화재, LIG화재(2개사)

〈기타〉

- 장기손해보험 중 암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연금저축, 저축보험, 종신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을 생명보험사도 제공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
  - 손보사의 상품과 생보사의 상품이 보상내용, 성격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성이 있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 가능
    - 예) 건강보험의 경우 생보사 상품은 정액의 보험금을 손보사 상품은 치료비 실비를 지급
  - 따라서, 동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추측되나,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장기간 등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
-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각 사의 경험위험률(보험사고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규제
  - 경험위험률의 반영으로 보험료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

나. 비가격경쟁 - 마케팅활동

- 손보사들의 마케팅활동은 사업비규모로 대략적인 파악 가능
- 손보사들의 2007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실제사업비는 4조 179억원으로 예정사업비(4조 3,194억원)보다 적음
  - FY2005 이후 광고선전비 감소 등 각 손보사의 사업비 절감과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는 예정사업비 책정, 초과사업비율이 낮은 장기보험 비중 증가 등으로 초과사업비율 개선
  - 다만, 자동차보험은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616억원 초과
  - 장기손해보험의 초과사업비는 -2,537억원
  - 판매채널별 초과사업비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대리점 및 직판 채널은 대리점 수수료 과다지급, 직판 채널의 과당경쟁 등으로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초과

※ 2008. 7. 1. ‘보험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중 손보사가 쓰는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정해 놓은 기준 2조5천억(적정사업비율 25%, 이윤2% 제외)을 초과하여 3조(보험료 기준 30%)원 이상을 ‘대리점 특별이익제공’ 등의 집행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원수보험료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과사업비	초과사업비율
FY 2004	85,208	21,698 (25.6%)	24,670 (29.0%)	2,972	13.7 %
FY 2005	87,885	22,509 (25.6%)	25,838 (29.4%)	3,329	14.8 %
FY 2006	96,492	26,180 (27.1%)	27,521 (28.5%)	1,341	5.1 %
FY 2007	105,539	29,966 (28.4%)	30,465 (28.9%)	499	1.6 %

#### 다. 사업자단체: 손해보험협회

##### (1) 설립 근거 및 목적

□ 1946. 8. 1.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sup>28)</sup> 및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

※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빌딩 6,7층

28) 제175조(보험협회)①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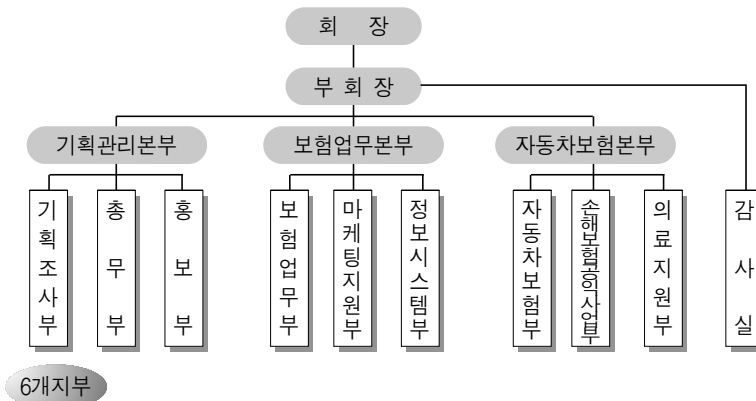
③보험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2.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회원사 현황(27개사)

□ 정회원(15),<sup>29)</sup> 준회원(1),<sup>30)</sup> 특별회원(5),<sup>31)</sup> 비회원(6)<sup>32)</sup>

## (3) 조직 구조



## (4) 협회의 주요 업무

## (가) 법령상 업무

-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운영<sup>33)</sup> (보험업법 제10장)
- 보험가입자, 수익자, 유족에게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조회 통보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6호)
- 신용정보관리 및 집적업무, 외환전산망 자료 집중업무<sup>34)</su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국환 거래법)

2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교보자동차보험, A.H.A, 교원나라자동차보험

30)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31) 패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 에이스 아메리카 화재해상보험, 젠리재보험, 퍼스트어메리카 권원보험, 미쓰이 스미토모

32)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동경해상, 스위스재보험, 뮌헨재보험, 스코르 재보험, RGA 재보험

33) 파산 손해보험사 발생시 해당 손보사에 가입된 약20개 의무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넘는 금액 중 일정분을 지급하는 제도

34) 손해보험사의 외국환 거래정보를 외환정보센터(한국은행)에 보고

-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나) 보험업법 등의 위임 업무

- 손해보험설계사(사용인) 등록·변경 신고 및 교차모집 신고 (보험업법 제194조)
- 손해보험 상품 및 금융기관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업무 (보험업법 제91조)
- 손해보험회사 경영공시 업무(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제4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sup>35)</sup>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다) 고유업무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조사, 통계 및 전산화
-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구
-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
- 국제회의 및 국제보험기구 등과의 교류업무
- 홍보·상담·소비자보호 (소비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 사고예방 및 보험금 누수방지업무
  - 보험범죄방지업무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 규정)
  - 자동차교통사고예방사업 (교통사고예방활동위원회 운영규정)
  - 의료심사업무 및 의료연수 업무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규정)

(마) 자율규제업무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

- 모집질서 유지업무 (예: 특별이익 제공 등 조사·제재)
- 손해보험 광고심의업무
-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업무

35) 뺑소니차, 무보험차, 절취운행차에 대한 피해자보상, 기금관리·보상업무 점검, 통합 콜센터 운영 등

## (5) 의사결정기구

### (가) 총회

- 구성 : 회장 및 15개 정회원사 대표이사
- 주요기능 : 정관변경, 임원선임·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 (나) 이사회

- 구성 : 상임이사(회장, 전무, 상무) 및 비상임이사(정회원사 대표)
- 주요기능 : 협회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협회 가입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 (다)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 구성: 협회장(위원장) 및 손해보험사 대표이사
  - 필요시 협회장, 이해관계 없는 회원사 대표,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인, 교수,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 구성
- 상호협정 금지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제재, 제재금 운영, 상호협정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제재를 위한 세부적용기준 결정 등 심의·의결
- “보험 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합동조사반 등을 두고 업무 위임 가능
  - 운영위: 상호협정 위반시 제재심의 및 조치, 분과위 및 합동조사반에서 보고된 사항의 심의 처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사항의 제재심의 및 조치
    - ※ 구성: 협회 전무이사, 회사 부사장, 전무이사
  - 분과위: 제재금 부과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금융감독원과 운영위로 부터 이첩된 사항 처리
    - ※ 구성: 협회 담당임원 및 회사의 업무·영업 담당임원

(6) 구성사업자에 대한 관여 정도

-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공식적·공개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최되는 사장단 간담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보교환 및 업계 공통사항 논의

라. 사업자간 상호협정(자율규제)

□ 1983년 11월 금융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손해보험 사업자간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체결

- 보험사는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사와 상호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 금융위는 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대한 인가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함 (보험업법 제125조 제3항)
- 손해보험사 상호간에 보험모집시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시 법령 등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상호협정상 금지사항 및 제재금

- ① 특별이익제공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5,0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② 외상보험 :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③ 보험계약 경유처리 : 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④ 허위사실 등의 유포 :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⑤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위반 및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 유형에 따라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⑥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⑦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위반 및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 만료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 이상의 제재금

- ⑧ 초과보험 : 재물보험의 미평가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금액 및 보험료 감액청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수당 및 수수료 확보를 위해 고의 또는 현저히 부당하게 초과보험 계약체결을 유도 하는 행위

⇒ 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상의 제재금



### 3. 산업의 수익성

#### 가. 수익구조 및 수익성 지표

- 손해보험업의 수익은 크게 보험영업부문의 수익과 투자영업부문의 수익으로 구분
  - 보험영업이익 = 보험영업수익(경과보험료)
    - 보험영업비용(발생손해액+순사업비+각종 적립금 증가액)
  - 총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보험산업의 수익성 지표로는 보험영업부문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등을 사용
  -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순사업비율 = (지급경비-수입경비)/보유보험료
- ※ 투자영업부문의 수익은 시장금리와 주식시장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험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

#### 나.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수익성 분석

- FY2001부터 FY2007까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sup>36)</sup>의 보험영업수익은 적자이나 투자영업부문에서 흑자를 내어 총영업이익은 흑자 유지
  - 보험영업이익은 -2,163억원으로 전년도 -8,319억원에 비해 크게 개선(74.0%)
    -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라 전년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폭이 2007회계연도 들어 크게 감소함으로부터 기인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19.1% 증가한 2조 6,641억 원을 기록(전년도 증가율은 7.1%)

5)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 그린, 흥국쌍용, 제일, 삼성, 현대, LIG, 동부, 교보약사(수입보험료 규모순)

- 보험 수익성 측면에서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
- 2007 회계연도에는 주식상승과 채권보유액의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 채권보유액이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함에 따라 이자수익 증가는 21.8%를 기록하고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은 전년대비 180.8% 증가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29.6% 상승

&lt;표 25&gt;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FY2001	-5,967	-6,920	-13,044	13,396	1,099	17,128	9,429	-5,819	4,084
FY2002	-4,090	3,859	210	11,127	-2,828	8,860	7,038	1,030	9,057
FY2003	-8,233	2,484	-5,953	14,268	-66	14,951	6,036	2,417	8,998
FY2004	-7,519	3,575	-3,414	17,136	1,558	19,451	9,616	5,134	16,044
FY2005	-10,561	5,410	-4,908	17,829	2,049	20,841	7,268	7,459	15,932
FY2006	-12,406	3,932	-8,339	19,657	1,561	22,357	7,251	5,493	14,019
FY2007	-5,902	4,499	-2,162	22,350	2,787	26,641	16,448	7,286	24,478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월간 보험통계

#### 다.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

- 손해보험사 전체의 경과손해율은 2002년에 크게 감소한 후 다소 안정되는 추세
  - 2007년 손해보험사 전체의 경과손해율(76.0%)은 전년대비 2.3%p 감소
  - 손해보험사 보험종목 중 만성적자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대비 6.1%p 감소한 것으로부터 기인

<표 26> 손해보험사 전체의 연도별 경과손해율

(단위 : %)

FY1998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89.6	109.1	82.5	80.8	73.2	77.4	77.3	77.4	78.2	76.0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손해보험업 종류별 경과손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 회계연도에 화재, 해상 등 일반보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증가
- CJ제일제당 화재사고, 태안기름유출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결과임
  - 화재보험은 전년대비 4.7%p, 해상보험은 5.5%p 증가

<표 27> 손해보험업 종류별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일반계정>						
화재	54.2	61.6	56.0	41.3	39.5	44.2
해상	51.6	57.3	49.1	52.3	52.1	57.6
자동차	71.8	80.6	76.5	80.0	81.3	72.4
보증	42.0	44.0	25.3	1.1	23.4	19.5
특종	52.2	58.1	50.7	51.5	55.4	60.8
권원	5.4	2.8	10.9	7.7	6.0	1.4
해외원보험 및 외국수재	55.7	61.0	60.1	59.4	59.2	69.2
장기위험 <sup>37)</sup>	30.7	34.5	43.0	44.8	44.0	42.4
소계	55.2	61.3	59.8	60.5	62.0	59.1
<특별계정>						
장기	114.3	114.2	109.9	107.1	105.6	105.1
개인연금	132.9	135.0	136.8	138.5	137.4	133.1
합계	73.2	77.4	77.3	77.4	78.2	76.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6) 가. 장기위험 - 장기,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등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나. 장기보험과 개인연금의 경우 2001.3월부터 위험, 부가보험료는 일반계정으로,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구분  
 다. 합계에는 일반계정의 권원, 해외원보험, 외국수재보험 등이 포함

- 손해보험사 전체의 순사업비율은 FY2001년 이후 23.86% 수준
- 2007회계연도 손해보험사의 순사업비는 7조 3,649억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2006년 6조 3,357억원)하였으며 순사업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23.2% 수준
  - 2007년 보유보험료 31조 6,992억원, 2006년은 27조 2,970억원

&lt;표 28&gt; 손해보험사 전체의 연도별 순사업비율

(단위 : %)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25.10	25.20	24.60	22.70	22.94	23.26	23.23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종목별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화재, 해상, 자동차보험의 순사업비율은 감소하였고 보증보험은 전년대비 0.4%p, 특종은 1.4%p, 장기보험은 0.2%p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06회계연도에 전년대비 1.1%p 감소한데 이어 2007 회계연도에서 0.3%p 감소

&lt;표 29&gt; 보험종목별 순사업비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FY2006		FY2007		전년동기대비	
	금액	사업비율	금액	사업비율	증감액	증가율
화재	115,813	46.9	123,651	44.0	7,838	6.8
해상	99,005	32.7	119,585	31.8	20,580	20.8
자동차	2,662,532	30.1	2,936,601	29.8	274,069	10.3
보증	176,152	17.7	148,844	18.1	-27,308	-15.5
특종	708,978	27.0	910,668	28.4	201,690	28.4
장기	2,498,403	18.5	3,020,941	18.7	522,538	20.9
개인연금	74,909	9.4	104,609	10.5	29,700	39.6
합계	6,335,794	23.2	7,364,894	23.2	1,029,100	16.2

라. 보험사별 영업실적

<표 30> 손해보험사별 영업실적(FY2007)

(단위 : %, 백만 원)

구 분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보험 영업이익	투자, 영업외, 특별이익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국내일반손보사>					
메리츠	78.9	23.6	-77,179	178,109	100,930
한화손보	78.2	25.2	-28,618	52,866	24,248
롯데	81.8	22.1	-37,033	42,025	4,992
그린	84.7	29.2	-84,447	114,750	30,303
흥국쌍용	75.6	29.6	-46,498	-29,234	-75,632
제일	76.4	24.1	-15,967	21,183	5,216
삼성	78.1	21.6	-49,881	710,246	660,365
현대	78.2	22.2	-75,386	315,132	239,746
LIG	80.2	22.9	-132,153	287,777	155,624
동부	78.1	20.9	-16,812	390,058	373,246
소계	78.6	22.6	-563,974	2,083,012	1,519,038
<국내전업손보사>					
서울보증	21.6	15.4	449,911	284,742	734,652
코리안리	73.2	25.7	-71,631	123,672	52,040
교보	80.0	22.6	-26,209	7,741	-18,468
교원나라	77.0	18.7	664	8,513	9,177
다음	79.3	20.5	-4,301	3,985	-315
소계	63.2	2.6	348,434	428,653	777,086
<외국사>					
A.H.A	52.0	64.8	-68,839	6,106	-62,734
ACE	43.6	42.4	4,531	1,266	5,797
FEDERAL	19.1	46.8	8,477	2,792	11,269
Gen Re	66.5	26.1	3,814	2,629	6,443
F.A.T.I.C	1.5	87.9	425	117	542
Tokio	49.9	27.5	2,813	481	3,294
M.S.I.K	72.1	34.3	-2,274	1,898	-376
Swiss Re	42.1	37.7	29,514	5,268	34,783
Munich Re	35.2	26.8	19,273	3,858	23,131
Scor Re	66.3	19.8	2,588	442	3,029
RGA	74.8	31.5	-1,058	1,056	-1
소계	49.6	46.3	-736	25,913	25,177
총계	76.0	23.2	-216,276	2,537,578	2,321,301

※ 자료 : 손해보험협회

### Ⅲ. 정부규제 현황

#### 1. 진입 및 퇴출 관련

##### 가. 진입 관련

###### □ 보험업의 허가(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신청시 정관,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포함),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기초서류) 등을 제출
- 허가요건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업무수행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물적시설 요구
  -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3)
    -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 위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안 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전문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2)
    - 인력 :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 수탁자(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전산전문인력,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물적시설 : 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전산설비의 적정성 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

□ 자본금 또는 기금(보험업법 제9조)

-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 규정
  -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규정<sup>38)</sup>
    - i) 생명보험 : 200억원
    - ii)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200억원
    - iii) 화재보험 : 100억원
    - iv)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 150억원
    - v) 자동차보험 : 200억원
    - vi) 보증보험 : 300억원
    - vii) 재보험 : 300억원
    - viii) 상해보험 : 100억원
    - ix) 질병보험 : 100억원
    - x) 간병보험 : 100억원
    - xi) 기타 보험종목 : 50억원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 개시 가능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자(법 제83조)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사용인으로서 동법에 의해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만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음

38) 보험회사가 2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종목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하고,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함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대리점의 등록(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등록요건(소속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구비) 요구(시행령 별표3)
  -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 등록(법 제91조)
  -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음

#### 나. 퇴출 관련

- 해산·합병, 보험계약의 이전(법 제138조, 제139조)
  - 해산·합병, 보험계약의 이전<sup>39)</sup>에 관한 결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며, 금융위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
- 영업 양도·양수의 인가(법 제150조)
  - 보험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필요
-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법 제158조)
  - 보험회사가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39)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음



- 3개월 경과 후에는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 다. 업무영역 관련

- ☐ 보험회사는 보험업 외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행가능(법 제11조)
  -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당해보험사 보유자산에 한함), 신탁업에 한하여 겸영이 가능(겸영업무)
  -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중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부수업무)
- ☐ 보험회사는 다음의 보험종목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함(법 제10조)
  -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추가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만기가 80세 이하, 보험금액이 2억원 이내인 보장성 보험\*\*
    -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 \*\* 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2. 보험상품개발 관련

### 가. 보험상품개발 절차에 대한 규제

- 상품개발시 금융위에 원칙적으로 “판매전 신고”(file & use)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판매후 제출(use & file)” 허용(법 제127, 128조, 시행령 제71조, 보험법감독규정 제7-81조)
  - 보험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제출
    - 보험상품 신고(제출)서
    -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 선임계리사의 확인서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여부와 예정위험률의 적정성 여부)

### 나.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

- 보험회사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보장성보험에 한해 허용(보험업감독규정 제7-62호 제1항)
  - 제3보험의 개발을 보장성보험으로 제한하고, 손해보험회사는 상해보험에 한해서만 보험기간 1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축성 보험<sup>40)</sup>을 허용

40) 저축성 보험: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3. 기타 사업활동 관련

#### 가. 자산운용 관련 규제

#####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법 제106조)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3%를, 동일 차주<sup>41)</sup>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12%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는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7%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는 총자산의 12% 이내로 제한됨
- 대주주 및 해당 보험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40%와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주주 및 해당 보험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법 제109조)

-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 외화자산 운용규제(법 제106조)

-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 자산을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4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파생금융거래 한도 및 거래대상상품 규제(법 제105조, 제113조, 시행령 제49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5-2조, 별표9)
  - 보험회사의 파생금융거래 한도는 직전 분기말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함
  -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① 선도·선물, ② 지수선물, ③ 스왑 및 옵션거래, ④ 신용관련 파생금융거래로 한정

#### 나. 기 타

- 자회사 소유 규제(법 제115조)
  -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회사의 영위업종은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으로 제한
    - 단,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음
- 보험설계사 1사 전속 규제(법 제85조)
  - 보험설계사는 1개 보험회사에만 소속되어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야 함
    - 다만, 생명보험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사를 위해 모집을 하거나, 손해보험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등의 '교차판매제도'가 2008. 8. 30.부터 시행
- 지주회사 전환시 비금융업회사 주식 소유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4호)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지주회사로 전환시 기존에 소유했던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함

※ 보험업법상으로는 금융업·비금융업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자유롭게 소유 가능

□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광고 사전신고제(보험업 감독규정 제1-7조)

○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함

-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보험업법 제100조, 시행령 제48조,  
보험업 감독규정 4-39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  
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하는 자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4. 과거의 규제개혁 실적

- 그간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제개편 등을 통하여 기존규제의 개선 및 완화가 이루어짐
  - 각종 금융감독기구의 통합,<sup>42)</sup> 금융지주회사의 도입,<sup>43)</sup> 겸업금지조항 혹은 전업주의조항 완화,<sup>44)</sup> 진입장벽 완화,<sup>45)</sup>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방카슈랑스 도입<sup>46)</sup> 등
-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있어서의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업무허용 범위를 확대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허가조건 중 보험금지급 업무수행인력 조건을 제외하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허가 조건 중 손해사정사 보유의무를 완화
  -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해외현지법인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시 기존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의 적용제외
  - 보험업 인허가시 요구되는 기초서류 제출의 간소화를 통해 보험업의 인허가 기간을 금융투자업 등 타업권에 맞추어 단축(현행: 5개월 → 개선: 3개월)
-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적 요소를 지닌 보험상품(예: 변액보험)이나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42) 1997. 12. 31.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43) 1999. 2. 5. 공정거래법 개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등)-->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신설]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44)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의 개정

45)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

46)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2003년 8월 1단계, 2005년 4월 2단계, 2006년 10월 3단계 도입

<표 31> 주요 규제개혁 추진실적

연도	주요 규제개혁 내용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영업양도를 허용</li> <li>• 보험사의 점포설치·이전·폐쇄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li> <li>• 보험중개인에 대한 s중전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li> </ul>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의 규제일몰제 적용</li> <li>• 보험요율 산출기관 설립 인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함</li> <li>•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 개선</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담당 기구, 보상담당 인력 및 업무제휴에 대한 제한 철폐</li> </ul> </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영위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 추가 등</li> </ul> </li> <li>• 보험중개인 등록기준 완화</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1단계 허용</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2단계 허용</li> <li>•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율체계 대폭 축소 및 제출상품(판매후 신고) 비중 확대</li> </ul> </li> <li>• 보험회사 지배주주의 승인 요건 완화</li> <li>•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사용 완화</li> <li>• 보험회사의 보고기한 완화</li> <li>• 보험설계사·대리점의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일원화</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제도 개선</li> <li>•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허용 [보험업법 시행령 59조]</li> <li>• 보험회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 제한 개선</li> <li>• 보험회사의 부수·겸영업무 관련 규제 개선</li> <li>• 보험상품 개발 절차 간소화</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li> <li>• 보험사 외화대출 한도규제 완화</li> <li>• 보험사의 동종 모자회사간 설계사 겸직금지 완화</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의 업무위탁시 허가요건 완화 (보험업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 완화 등</li> </ul> </li> <li>•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li> <li>• 보험사 해외현지법인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시 승인을 신고로 전환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2항)</li> <li>•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 간소화 (보험업법 제5조)</li> </ul>

※ 자료 : 규제위 규제개혁백서, 재경부 보도자료

## IV. 해 외 사 례

### 1. 세계시장 규모<sup>47)</sup>

- 2007년 세계 보험시장규모는 4조 609억 달러로 전년대비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3.8%)보다 낮은 수준인 3.3%<sup>48)</sup>를 보였으며 이는 2006년도 성장률(5.0%)보다 낮은 수준
  - 전체보험의 58.9%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이 5.4% 성장하며 보험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한 반면 손해보험은 0.7% 성장으로 저조한 수준
    - 생명보험: 2조 3,931억 달러, 손해보험: 1조 6,678억 달러
  - 생명보험은 고령화에 따라 연금 및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호조로 5.4% 성장
  - 손해보험은 가격경쟁심화에 따른 보험요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0.7% 성장
    - 손해보험산업은 해상·항공부문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인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가격경쟁이 촉발됨에 따라 보험요율 인하 및 성장세 둔화
    -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많은 손해보험종목이 가격경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은 성장세 지속
    - 최대 손해보험시장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9.4%로 전년(12%)에 비해 감소
  - 지역별로는 선진보험시장\*이 2.5% 성장한 반면, 신흥보험시장\*\*은 11.8% 성장함으로써 신흥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뚜렷
    - \* 북미, 서유럽, 일본·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지역
    - \*\* 남·동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47) 금융감독원, “최근 세계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08. 8. p. 1~4

48)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성장률, 이하 같음



- 선진보험시장의 비중이 90%로 세계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전년도 비중인 92% 보다는 다소 하락)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64.3%를 차지

&lt;표 32&gt; 세계 각국의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US백만\$, %)

순위	국 가 명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 계	점유율
1	미국	578,357	651,311	1,229,668	30.3
2	영국	349,740	113,946	463,686	11.4
3	일본	330,651	94,182	424,833	10.5
4	프랑스	186,993	81,907	268,900	6.6
5	독일	102,419	120,407	222,826	5.5
6	이탈리아	88,215	54,112	142,327	3.5
7	한국	81,298	35,692	116,990	2.9
8	네덜란드	35,998	66,834	102,832	2.5
9	캐나다	45,593	54,805	100,398	2.4
10	스페인	31,166	43,530	74,696	1.8

※ 자료 : Swiss Re “World Insurance 2007”

- 우리나라는 보험료 규모기준 1,170억 달러로 세계7위이고 보험밀도\*(2,384 달러)는 세계 21위, 보험침투도\*\*(11.8%)는 5위
  - \*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
  -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
- 생명보험은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로 10.5% 성장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세계 7위를 기록
- 손해보험은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12.4% 성장(세계 10위)
- 다만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세계 수준(41.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lt;표 33&gt; 세계 보험산업 비교

(단위: \$, %, ( )안은 순위)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한 국	중 국	싱가폴
수입보험료	11,701억 (1)	4,603억 (2)	4,884억 (3)	1,070억 (7)	708억 (9)	108억 (31)
1인당 보험료	3,924 (6)	3,590 (9)	6,467 (1)	2,384 (21)	53.5 (70)	1,958 (21)
보험침투도	8.8 (14)	10.5 (7)	16.5 (1)	11.8 (5)	2.7 (47)	6.5 (12)

자료 : Swiss Re, sigma No4/2007

## 2. 지역별 보험시장 동향<sup>49)</sup>

### 가. 선진보험시장

- 선진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3조 6,465억달러로 생명보험이 전년도에 비해 4.7% 성장하였으나, 손해보험은 0.3% 감소
  - 생명보험은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증가로 성장률이 양호하였으나 지역별로 다양\*
  - \* 미국·영국·아일랜드·대만은 성장, 일본·프랑스·이탈리아는 감소
  - 손해보험은 가격경쟁과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보험료 규모가 전년 보다 감소
  - 보험료 지출은 1인당 3,577달러(생명보험 2,134달러, 손해보험 1,434달러)이고 보험산업 규모는 GDP의 9%를 차지

49) 금융감독원, “최근 세계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08. 8. p. 5~6

&lt;표 34&gt; 선진보험시장의 지역별 동향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북 미	저축성 보험 및 연금의 판매 호조로 5.8% 성장	미국시장의 저조 및 가격경쟁으로 1.0% 감소
서유럽	변액보험 및 연금의 판매증가로 5.5% 성장	경쟁심화 등으로 0.2% 감소
일 본	연금판매 감소 등으로 수입보험료 규모가 3.6% 감소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등의 영업저조로 0.6% 감소

## 나. 신흥보험시장

- 보험료 규모는 4,143억달러로 세계보험시장의 10%를 차지하면서 생명보험이 13.1%, 손해보험이 10.2% 성장
  - 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연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18.6%), 인도(14.2%), 브라질(15.5%), 인도네시아(56.9%) 등이 성장 주도
  - 손해보험도 경제성장과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특히 아시아 및 동유럽에서 높은 성장률 기록
  - 보험밀도는 72달러(생명보험 38달러, 손해보험 34달러)이고 보험침투도는 2.8%를 시현

&lt;표 35&gt; 신흥보험시장의 지역별 동향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남·동아시아	중국과 인도가 각각 18.6%, 14.2% 성장하며 시장 주도	중국과 인도시장 성장으로 20% 성장
중남미	브라질과 멕시코의 개인보험 성장으로 11% 성장	자동차보험 및 재물보험의 성장 등으로 8.3% 성장
중앙·동유럽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성장 등으로 17% 성장	러시아의 의무 건강보험의 성장으로 12% 성장
중동, 터키, 중앙아시아	걸프지역 국가들의 성장으로 7.4% 성장	터키와 걸프지역 국가들의 성장으로 10%성장
아프리카	남아공의 변액보험 등으로 3.4% 성장	남아공의 손해보험산업 침체로 0.6% 성장

## 3. 국가별 방카슈랑스 운용현황

- 국가별로 방카슈랑스 시장점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보편화되어 있거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lt;표 36&gt; 주요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 현황

(단위: %,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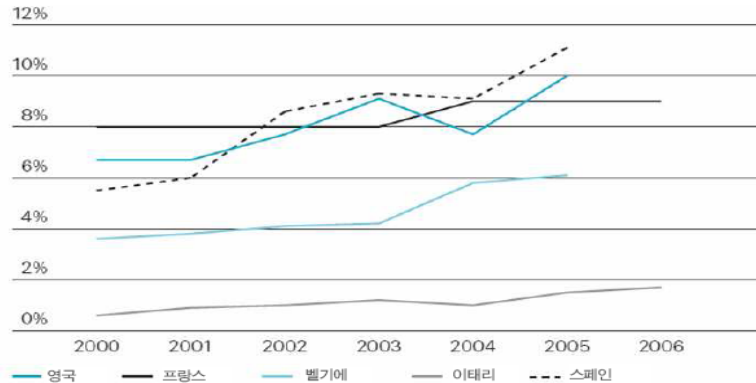
구 분	손 해 보 험				생 명 보 험			
	방카 슈랑스	설계사 및 대리점	보험 중개인	기타	방카 슈랑스	설계사 및 대리점	보험 중개인	기타
미 주	미 국	n.a.	n.a.	n.a.	2.0	n.a.	n.a.	n.a.
	캐 나 다	nagligible	18.0	74.0	80	1.0	60.0	34.0
	브 라 질	13.3	n.a.	71.6	n.a.	55.0	n.a.	30.0
	멕시코	10.0	25.0	50.0	15.0	1.0	90.0	
유럽	칠 레	18.8	81.2			13.0	87.0	
	영 국	10.0	4.0	54.0	32.0	20.3	~10.0	~65.0
	프 랑 스	9.0	35.0	18.0	38.0	64.0	7.0	12.0
	독 일	12.0	57.0	22.0	9.0	24.8	27.1	39.4
	이 태 리	1.7	84.2	7.6	6.5	59.0	19.0	9.4
	스 페 인	7.1	39.5	28.3	25.2	71.8	15.4	5.4
	벨 기 에	6.1	10.1	65.6	18.2	48.0	3.2	26.5
	포 르 투 갈	10.0	60.7	16.7	12.6	88.3	6.9	1.3
	폴 란 드	0.6	58.2	15.7	25.5	14.4	39.7	4.3
	터 키	10.0	67.5	7.8	14.7	23.0	30.1	0.8
아시아	일 본	n.a.	92.9	0.2	7.0	n.a.	n.a.	n.a.
	한 국	4.0	49.7	0.9	45.4	8.5	91.5	
	중 국	n.a.	45.5	2.0	52.6	16.3	83.7	
	대 만	n.a.	62.0	30.0	8.0	33.0	11.7	6.6
	말레이시아	10.0	40.0	23.0	27.0	45.3	49.4	2.4
	호 주	n.a.	21.0	74.0	5.0	43.0	57.0	

※ 자료: Bancassurance emergomh trend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igma No. 5,  
Swiss Re, 2007

- 유럽은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sup>50)</sup>

<그림 4> 유럽국가별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비중

(단위 : %, 2006년 기준)



- 방카슈랑스 도입·운영성과는 은행의 시장지배력, 기존 보험판매채널의 견고성,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 등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이 큰 프랑스와 벨기에, 기존의 보험판매채널이 약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급속히 발전한 반면 보험시장이 성숙된 이후에 도입한 영국에서는 실적부진

<표 37> 유럽의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점유율(2005년)

국가	프랑스	이탈리	벨기에	스페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점유율	9.0%	1.5%	5.7%*	6.1%*	7.0%	6%	11.0%*	4.8%*

\*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점유율은 2004년 수치임.

자료 : Finaccord, Non-Life Bancassurance in Europe: Motor and Household Insurance, 2006.

50)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p. 11

- 북미 국가들은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경향 및 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방카슈랑스 점유율이 낮으나 미국은 1999년 GLBA(Gramm-Leach-Bliley Act) 제정 후, 상승추세
  -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인으로 불리우는 GLBA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타 금융업에 상호 진출하는 것을 허용
  - 미국은행보험협회(ABIA)의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전체은행의 74%가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수입보험료가 1997년 280억 달러에서 2003년 800억 달러에 이름
- 1980년대 중반부터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호주의 경우, 생명보험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43%)을 기록
- 일본의 경우 2000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2001년 4월부터 실시됨
-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보험회사 합병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합병과 다른 금융부문과의 합병사례도 다수
  - 미국: Citigroup/Travelers(1998년 4월), Berkshire/General Re(1997년 5월), Aetna Life/US Healthcare (1998년 1월)
  - 영국: Commercial Union/ General Accident(1997년 4월), Royal Insurance/Sun Alliance(1998년 2월)
  - 프랑스: AXA/UAP (1996년 3월)
  - 오스트리아: Vienna/Erste Ban (2008년 6월)
  - 일본: 야스다 화재해상보험/닛산 화재해상보험/타이세이 화재재해항보험(2002년 4월), 동경해상화재보험/일동화재해상보험(2004년 10월)

#### 4. 각국의 보험규제체계<sup>51)</sup>

##### 가. 보험감독기구 및 금융거버넌스 규제

###### 〈미국〉

- ☐ 미국의 보험감독제도는 은행 및 증권과 달리 연방감독체계가 아닌 주별 감독체계방식을 유지
  - 1945년 McCarran-Ferguson Act(Public Law 15) 제정<sup>52)</sup>을 통해 보험 사업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해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명확화
    - 문제된 행위가 ①보험사업<sup>53)</sup>에 해당하고 ②주법의 규제를 받는 한도<sup>54)</sup>에서 ③보이코트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협정이 아닌

51)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2006.12.,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부연구위원 등), 한국보험법(성대규 저) 및 OECD 경쟁위원회 제2차업반 회의자료 “보험산업의 규제와 경쟁”(1998.6.)

52) 1944년 U.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판결에서 연방최고법원이 보험거래 역시 주 간통상에 해당되고 따라서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자 의회에 이에 대응하여 1945년 보험사업을 서면법, 클레이턴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하는 내용의 McCarran-Ferguson법을 제정

53) Group Life & Health Insurance Co. v. Royal Drug Co. 판결(1979)에서는 독점금지법 적용제의 대상인 보험업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수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험업’에 속하는지에 판단은 보험산업의 단체적 속성, 즉 대수의 법칙이 지배하고 위험의 정확한 계산과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그와 같이 보험업을 유지·영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그 외의 일반적 경영활동은 ‘보험회사의 영업’일 수는 있어도 적용제의 대상으로서의 보험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Union Labor Life Insurance Co. v. Pireno 판결(1982)에서는 특정 행위가 보험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세가지 요건(Pireno Test)으로 ① 문제된 행위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산하여 인수하는 효과를 가질 것, ②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계약관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것, ③ 보험업에 속하는 주체에 한정되어 있을 것을 제시함

Pireno test를 적용한 결과,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나 위험 등을 공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공동행위(cooperative rate-making efforts), 보상지급요구 심사, 보험계약서면의 표준화, 보험물건의 공동인수(pools), 보험인수 여부의 판단,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마케팅과 보험증서의 배달, 재보험 등은 보험업의 하나로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54) McCarran 법의 취지인 각 주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법상 주정부가 문제된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 즉 동 행위를 금지 또는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실제 규제의 강도가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규제법의 적용면제가 가능

미국대법원은 1980년 California Retail Liquor Dealers, Ass'n. v. Midcal Aluminum, Inc. 판결에서 ① 주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clear articulation), ② 주정부가 허용된 위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경우<sup>55)</sup>에 한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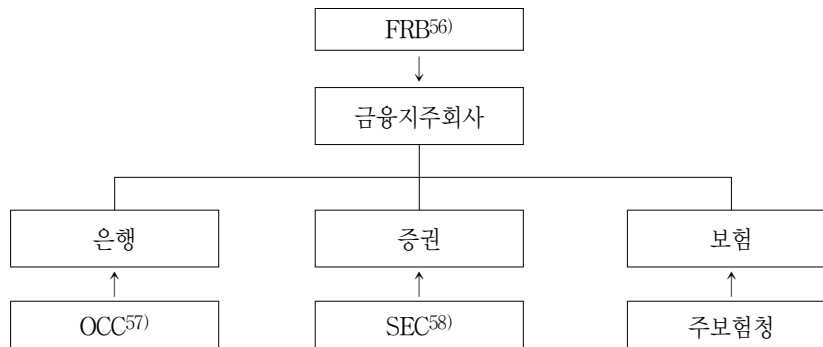
- 이후 각주의 보험감독관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전미보험감독관협회)가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의 보험감독 및 규제개혁을 담당
- 미국에서 행해지는 “보험가격” 규제행태는 「손해보험요율모델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에 근거하여 7가지로 구분
  - ① 주 보험감독청 제정요율(state-prescribed), ② 사전인가(prior approval), ③ 수정 사전인가(modified prior approval), ④ 범위 요율(flex rating), ⑤ 신고후 사용(file and use), ⑥ 사용후 신고(use and file), ⑦ 신고불요/산출자료유지관리(no file/record maintenance)
- 1933년 은행법과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금융그룹의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순수) 방식을 통해 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소유 가능
- 단, 같은 법인이 은행, 증권, 보험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되며, 은행, 증권, 보험사가 직접 여타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금지
- 예금은행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투자은행업과 보험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대신 투자은행지주회사 설립 가능

실효성있게 규제 및 감독하고 있을 것(active state supervision)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Midcal test)를 해야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55)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806(1993)에서 최고법원은 보이코트의 전형적인 특징은 별개이면서 무관한 거래의 조건에 변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특정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는 데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거래대상인 거래는 주된 거래와 별개이면서 무관할 것(separate and unrelated)를 요구



&lt;그림 5&gt;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한 규제감독체계



## &lt;영국&gt;

- ‘보험회사법’에 의해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보험감독국이 보험감독을 담당하다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의해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으로 일원화
  - Banking Act 1987(은행), Financial Services Act 1986(증권), Insurance Companies Act 1982(보험) 등 금융규제법규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으로 통합
  - SIB(증권투자위원회), SSDBE(영란은행의 은행감독부서), FSC(공제조합위원회), ID(보험감독국), RFS(공제조합등기소), BSC(주택금융조합위원회), SFA(증권선물협회), IMRO(투자관리규제기관), PIA(개인투자자협회) 등 9개 규제감독기관을 금융감독청으로 일원화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금융기관의 영위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무를 수행가능
  - 다만 이익 충돌을 야기하는 금융업무는 겸영하지 않는 관행 확립

56) FRB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57) OCC :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58) SEC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일본〉

- 1993년 이전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왔으나, 1993년 금융제도개혁으로 업태별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업무간 상호진입 허용
  - 은행의 증권자회사 설립 및 증권회사의 신탁은행자회사 설립 허용('93), 자회사에 의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상호진입 허용('96)
- 1998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대장성 산하의 업무영역별 감독기구들의 업무를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gency)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지주회사설립을 허용
  - 순수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 신탁자회사 등 개별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거나, 은행모회사 하에 증권자회사를 두는 형태 가능
  - 다만,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기 보다는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

## 나. 최저자본금 규제

국 가 명	최 저 자 본 금
미국(뉴욕주)	○ 생명보험회사 : 200만 달러 ○ 손해보험회사 : 보험종목별로 10만달러~200만달러
영국	○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 : 60만유로 ○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 이외의 회사) : 8만유로 ○ 손해보험회사 : 보험종목별로 20만유로~40만유로
프랑스	○ 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 : 500만프랑 ○ 생명보험회사(상호회사) : 250만프랑 ○ 손해보험회사(주식회사) : 300만프랑~500만프랑 ○ 손해보험회사(상호회사) : 150만프랑~250만프랑
일본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10억엔

## 다. 생·손보 겸영 및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 〈미국〉

- ☐ 원칙적으로 생·손보 겸영을 불허하나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같이 취급할 수 있음
  - 뉴욕주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는 기본보험종목(26가지)을 모두 허가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
- ☐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 가능
  - 겸영업무에는 재보험업무, 적립협약(funding agreement) 판매 또는 발행 등이 있음

## 〈영국〉

- ☐ 1982년까지 생·손보 겸영이 폭넓게 허용되다가 1982년부터 원칙적 금지
  - 현재 생·손보 겸영이 허용되는 종목은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보험 기간 5년 이하의 질병으로 인한 취업불능, 질병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대한 보상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한정
- ☐ 인가받은 보험사업에 관한 또는 보험사업을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음

## 〈일본〉

- ☐ 질병 및 상해의 발생·장해·치료 및 상해사망에 대한 정액보험과 실손보상보험에 한해 생·손보 겸영 가능
- ☐ 보험회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으며, 겸영 업무 영위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당국의 인가 필요
  - 겸영업무에는 지방채, 사채 등의 모집 또는 수탁 관리업, 담보부 사채의 신탁업,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업 등이 있음

라. 과장광고 관련 규제 시스템<sup>59)</sup>

## 〈미국〉

- ☐ 보험광고는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표시하여야 함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
  - 오인 및 기만여부는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 인상(overall impression)을 기준으로 보험감독청장이 결정
  - “오직, 필수적인, 최소한” 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 (뉴욕주)
- ☐ 보험상품 광고 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주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뉴욕주)

## &lt;광고 행위 관련 준수사항&gt;

- ① 보험상품 광고는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내역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아니됨
- ② 보험회사는 광고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업계의 다른 회사에 비해 재정상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서 더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영국〉

- ☐ 광고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함
  - 과장광고(오인 및 기만)여부는 다수의 평균적 소비자에게 그릇된 인상(impression)을 주어 이를 기초로 소비자가 보험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
- ☐ FSA<sup>60)</sup>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COB(Conduct of Business), ICOB(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등에서 광고 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

59)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보도자료, 2007. 12. p. 5~6

60)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2007년 1월 자동차보험 및 가정종합보험 관련 보험료 절감 광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 45%의 광고가 부당(misleading)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요구하고 2007년 4월 다시 점검한 결과, 6%의 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광고 행위 관련 준수사항>

- ① 보험료를 제시할 경우 개별 소비자별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평균적 기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②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하거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표시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당국(FSA)은 이를 당해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
- ③ 중요한 권리(Prominent claims)를 제한하기 위해 작은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일본>

- ☐ 금융청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감독지침을 개정(2006. 4. 1.)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예시>

- 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 (예: 면책, 감액조건 등 작게 표시)
- ② 유리한 거래조건과 제한조건을 같이 표시하지 않는 광고 (예: 젊은층의 보험료만 예시)
- ③ 확실한 근거가 없이 과장하여 표현하는 광고 (예: 업계넘버원)

<프랑스>

- ☐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소비자법전에서 허위·과장광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
  -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상 오류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 (소비자법전 L121-1~L121-15)

## 5.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사례

- 가격탄력성이 높고 가격규제가 심한 보험산업의 특성상 담합유인이 많아 담합, 특히 수수로 담합에 대해 경쟁당국의 규제사례가 많음

가.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Hartford Fire Ins. 등 보험회사들이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시<sup>61)</sup>

- 보험회사들은 미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상 상업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공모

〈위법으로 판단된 주요 합의내용〉

- ① 지급기간내 사고발생이 있는 경우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전통식 방식에서 보험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로 축소
- ② 새로운 보험정책 시행일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의 경우에도 지급요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을 신설
- ③ 전에는 돌발적인 오염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새로운 보험정책에서는 제외

나. 2005년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17개 보험회사 및 임원들에게 경쟁제한 방지법(GWB) 제1조 위반의 가격카르텔을 이유로 1억 5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 1999년 중반이후 기업손해보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화재조업중단보험, 기술보험, 건물보험 및 병원용 손해보험 등의 분야에서 보험요율과 보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

61)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Supreme Court, 1993)

〈위법으로 판단된 주요 합의내용〉

- ① 기존의 계약기간 중 보험료를 인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조정하지 아니함
  - ② 새로운 보험계약에는 언제나 보험료인상 및 조정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기로 결정
  - ③ 담합에 참여한 보험회사는 각자의 이행조치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함
- ⇒ 연방카르텔청은 기업고객에게 경쟁적인 보험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기업고객은 보다 유리한 보험상품을 얻게 되거나 보험료 인상시 보험회사를 바꿀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다. 1999. 3. 31. 일본 공취위는 일본기계보험연맹이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sup>62)</sup>을 위반하였다고 결정

- 기계보험연맹은 회원들에게 일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기계보험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기계보험연맹은 회원이 영업보험료율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회원들이 결정된 내용으로 인가를 신청하게 함
  - 기계보험연맹은 인가된 내용에 근거해서 영업보험료율을 정하는 통일 기준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배포
  - 통일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계보험연맹에게 보험요율 산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산정된 비율로 기계보험을 인수하도록 하는 제도(求率制度)를 실시

62) 독점금지법 제8조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라. 2000. 7. 28. 이탈리아 경쟁당국<sup>63)</sup>은 보험사<sup>64)</sup>들이 민사보상 서비스<sup>65)</sup>를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

- AGCM은 상기 보험회사들이 1999. 9. 8, 1999. 11. 10, 2000. 2. 3. 서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고 자동차 보험료 합의를 위해 경쟁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결정
- 당해 회사들이 보험료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료가 산정되었다고 판단

마. 기타<sup>66)</sup>

- 2008. 7. 18. 불가리아 경쟁당국은 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료율의 최소 수준을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2008년 초 메사츄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는 입찰담합한 이유로 AIG에게 1,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2005. 4. 10. 獨 연방카르텔청이 10개 주요 보험사들<sup>67)</sup>과 임원들에게 화재 및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대하여 가격담합 (1999-2002)한 행위를 제재함
  - 관련보험사들의 “대기업의 재해보험은 리스크 부담이 커 보험사들간에 컨소시엄과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배척
- 198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Allstate insurance 등 자동차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보장할 자동차 차체의 수리 최고액을 합의<sup>68)</sup>하였으므로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시

63) Autorità garante per la concorrenza e del mercato, 이하 ‘AGCM’라 함

64) Vincenzo Manfredi against Lloyd Adriatico Assicurazioni SpA, Antonio Cannito against Fondiaria Sai SpA and, respectively, Nicolò Tricarico and Pasqualina Murgolo against Assitalia SpA

65)civil liability auto insurance

66)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67) Allianz, Talanx/HDI, Gerling, Axa, Aachen-Münchener, Gothaer, Victoria 등

68)Quality Auto Body v. Allstate insurance Company, 455 U.S. 1020, 102 S.Ct. 1717 (1982)



## V. 경쟁 및 소비자이슈 도출

### 1.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가. 보험업 개시요건 중 자본금 및 기금 요건

□ 보험업 개시요건으로 3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제9조)

○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

⇒ 외국의 보험업 개시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준<sup>69)</sup>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미국(뉴욕주) : 생보사는 200만 달러, 손보사는 보험종목별로 최소 10만달러 내지 최고 200만 달러

※ 일본 : 생보사, 손보사 모두 10억엔

※ OECD는 보험사의 자본금 기준은 건전성 확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취급상품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 (1998년 OECD 경쟁위 보험산업 라운드테이블 회의)

⇒ 현행 자본금 기준은 과거 보험회사들의 설립초기 필요 자금을 평균하여 산출된 것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과도한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91년 이후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없는 상황

69) 동 보고서 p. 58 참고

#### 나. 보험업 허가요건 중 물적시설 요건

□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물적 요건 (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을 갖추어야 함(보험업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2])

⇒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 시설’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

⇒ 전산설비의 경우, 보험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설비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 은행의 경우에는 인가요건으로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2008. 5. 23.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일부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예)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 손해사정 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 완화 등

#### 다. 타업종 영위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 타업종 영위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별표3)

○ 소속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구비

⇒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타업종 영위 법인을 다른 법인과 차별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라. 보험업의 허가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필요(보험업법 제4조~제6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 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자본금,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
  - 금융위는 공적자금 회수 등을 사유로 다른 손해보험사에 대해 보증보험 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서울보증보험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여 신설된 이후 10조 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됨
  -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중 2006년 5,456억원, 2007년 3,522억원 등 총 8,978억원이 회수된 상태
-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막대한 순이익을 실현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lt;표 38&gt; 서울보증보험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당기순이익	2,434억원	5,196억원	6,571억원	5,487억원	5,306억원
자기자본	7,803억원	1조 3,166억원	1조 4,930억원	2조 2030억원	2조 2,228억원
지급여력비율	1,033%	1,063%	1,105%	1,127%	1,737%
부채비율	295%	157%	153%	126%	113%

※ FY2006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당기순이익이 28개 손보사 중 1위(2위 삼성화재 3,412억원, 3위 동부화재 1,225억원)이며, 손보사 전체 당기순이익 1조 757억원의 51%를 차지

※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외에 개별법에 의해 보증기금, 공제조합 등이 건설이행보증 등 일부 보험종목을 취급(참고1)

⇒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바, 보증보험시장의 경쟁도입방안 검토 필요

## &lt;참고 1&gt; 서울보증보험(주)의 독점 및 경쟁상품 현황(FY200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중분류	소분류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독점 상품	신원보증	신원보증	신원보증보험	29,346,253	43,594
			교육훈련비보증보험	41,180	239
			신원보증인보험	290	2
	채무 이행보증	법률상 채무불이행	보석보증보험	61,662	493
			공탁보증보험	6,966,484	44,241
			병무귀국보증보험	28,050	-156
			경매보증보험	72,597	1,005
		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융성)	소액대출보증보험	200,457	5,614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5,429,937	61,440
			개인주택자금 보증보험	1,583	22
			사업주택자금 보증보험	0	0
		계약상 채무불이행 (비금융성)	할부판매보증보험	22,313	585
			리스보증보험	0	-3
			상품권보증보험	429,150	16,408
			쇼핑몰보증보험	145,945	438
			공매보증보험	37,619	141
	보증보험(16개) 소계			42,783,520 (43.3)	174,062 (18.9)
	신용보험	상업신용	상업신용보험	4,328,841	76,745
		재무신용	소액Loan신용보험	371,997	521
			신용카드신용보험	7,048,412	8,220
			할부신용보험	3,223,281	152,250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7	0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470,260	3,914
			모기지신용보험(MCI)	4,080,387	89,846
			역모기지신용보험	0	0
	신용보험(8개) 소계			19,523,185 (20.0)	331,497 (35.9)
	기 타	크레디트카드보험	0	0	
		가계수표보험	0	0	
	합 계 (26개)			62,306,705 (63.3)	505,560 (54.8)

구분	중분류	소분류	보험상품명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주요 경쟁기관
경쟁 상품	채무 이행보증 (27개)	법률상 채무 불이행	납세보증보험	667,928	2,694	신용보증기금, 각종 공제조합
			인허가보증보험	2,946,276	51,249	각종 공제조합
			송환보증보험	543	8	일반 손해보험사
		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융성)	사채보증보험	39,837	978	신용보증기금
			e-구매대금	0	0	신용보증기금
		계약상 채무 불이행 (비금융성)	이행입찰보증보험	1,853,575	3,590	각종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은행
			이행계약보증보험	8,297,517	95,296	"
			이행하자보증보험	4,191,658	66,061	"
			이행차액보증보험	17,054	93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6,771,441	49,586	"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1,046,294	29,308	신용보증기금, 은행
			이행지급보증보험	6,985,332	100,519	신용보증기금, 각종 공제조합, 은행
			Bid Bond	4,012	6	은행
			Performance	367,127	3,030	"
			Maintenance	36,023	300	"
			Advance Pay	94,519	1,396	"
			Labor & Mat.	78,282	418	"
			어음보증보험	0	0	신용보증기금
			설계감리보증보험	117,243	1,402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보험	780,011	3,363	건설공제조합
			시공보증보험	1,302,669	2,815	건설공제,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보험	411,878	3,861	대한주택보증
			소비자피해보상 보증보험	0	0	특판공제, 직판공제
			결제수단	5,764	22	은행
		P/G	0	0	"	
		부품성능보증보험	0	0	수출보험공사	
		성능보증보험	386	4	기계공제조합	
	보증보험(27개) 소계			36,015,370 (36.6)	415,999 (45.2)	
	신용보험	상업신용	중소기업	44,944	183	일반손해보험사
		재무신용	공통신원	0	0	
	신용보험(2개) 소계			44,944 (0.1)	183 (0.0)	
	합계 (29개)			36,060,314 (36.7)	416,181 (45.2)	

※ 자료 :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KDI 나동민, 2006)

## 〈참고 2〉 보증보험시장 연혁 및 규제개혁동향

### 1. 보증보험시장 연혁

- ☐ '61년 신원보증보험 판매 이후 일반 손해보험사와 전업사(대한보증보험(주), '69년 설립)가 보증보험상품을 공동취급
- ☐ '70년 대한보증보험의 부실화에 따라 정부의 보증보험 일원화조치 이후 현재까지 전업사체제 유지
  - '70~88년간 대한보증보험(주) 1사체제로 운영
  - 보증보험시장 독점체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어 '89년 한국보증보험(주)이 설립, 양사체제로 전환되었으나,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보증사고 급증으로 양사 모두 지급불능 위기
  - 이에 따라 '98년 양 보험사의 합병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설립되었으며 공적자금 투입(10.25조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 2. 보증보험시장 규제개혁동향

- ☐ 서울보증으로의 일원화 이후 공정위는 1999년 「보험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보증보험 분야 경쟁도입 제기
- ☐ 2004년 공정위가 152개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경쟁도입 연기
- ☐ 2005.11월 공정위가 보증보험 단계별 개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금감위는 반대
  - ※ 단계별 개방 대상분야 및 일정
    - 제1단계: 정부발주공사 관련 건설보증시장(공사이행보증보험)(2006.1.1.)
    - 제2단계: 기업신용보증보험(2007.1.1.)
- ☐ 2005.11.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006년 상반기 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
- ☐ 2007.6. 금감위는 WTO협정 위반소지 등을 이유로 단계적 개방 로드맵 발표를 하지 않고 전면개방 대신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부분 개방 효과를 달성하는 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
- ☐ 공정위에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임

〈사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종사자수 제한

-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인 이하의 모집종사자를 두도록 규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점포별 모집종사자를 2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권익을 감소될 우려가 있음

※ 동 조항의 존치 이유로 들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급격한 판매력 확대」, 「보험설계사 조직 위축」은 판매채널간 경쟁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모집종사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한도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25%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계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는 합산하여 33%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시행령 제40조 제5항)

○ 대형보험회사 또는 계열보험회사의 시장독점 방지를 위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수요가 많은 보험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므로 소비자 선택권 및 사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1개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4개 이상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해야 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될 가능성 있음

- ※ 취급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상품별 정보에 대한 숙지도 저하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수준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음

#### 다. 제3보험 상품개발 제한

- 보험회사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상품 개발을 보장성 보험에 한해 허용(보험업감독규정 제7-62호 제1항)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선택권 축소하거나 사업자의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권 침해할 우려

- ※ 보험기간이 장기일수록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바, 제3보험에 대해서도 저축성 보험까지 상품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

- ※ 저축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라. 보험사의 업무위탁 제한

- 현재 각 금융기관이 인허가 받은 금융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와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구분(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별표 1)
  - 보험회사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에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가 포함



⇒ 보험업법 제115조는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의 경우 자회사로 하여금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는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보험계약 관련 부수업무로서, 이를 본체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저해

⇒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업무 중, 일부 위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

예시> 자동차보험 중, 소액 보험금 지급건은 손보사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예시> 장기손해보험 중 소액치료비 청구건

※ 2008. 5. 23.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을 통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규제의 폐지 검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당해 규제목적  
을 달성하면서도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 가. 공정위 심결사례 분석

- ☐ 2000년 이후 손해보험분야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경고이상 처리한 사건은 21건
- 부당공동행위 5건, 거래상지위남용 8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건, 부당지원행위 1건, 부당한 광고행위 등 4건

<표 39> 공정위 조치실적

(단위: 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부당공동행위	-	1	1	-	-	-	-	1	2	5
부당고객유인	-	-	1	-	-	-	-	-	-	1
거래상지위남용	-	-	-	3	-	-	-	-	5	8
부당지원행위	1	-	-	-	-	-	-	-	-	1
의결권 제한위반	1	-	-	-	-	-	-	-	-	1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	-	-	-	1	-	-	-	-	1
부당광고	1	-	-	-	1	2	-	-	-	4
계	3	1	2	3	2	2	-	1	5	21

\* 공정위 지식정보시스템

### ☐ 주요 심결사례

#### ① 부당 공동행위 관련

- 손해보험사 등의 부당공동행위(2008.8.27)
  - 24개 보험회사<sup>70)</sup>들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상해 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율 축소·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공동적용 등을 합의·실행(과징금 105억원 부과)

70) 삼성화재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 및 교보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

- 8개 보험회사<sup>71)</sup>들은 및 농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05년, '06년에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참여하기로 합의·실행 (과징금 19억원 부과)
-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2007.9.12)
  -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종목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 개별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에 대해 합의·실행(과징금 508억원 부과)
-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경쟁제한 행위 (2002.10.4)
  - 대한손해보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 중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함 (과징금 1억 8천만원 부과)
  - \*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오일보충(엔진·브레이크), 라디에이터캡 교환, 전조등·브레이크등 교환, 윈도브러쉬 교환, 팬벨트교환, 엔진과열 응급조치 등
  -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무상으로 실시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와 견인서비스를 1998년 신규계약분부터 폐지하거나 유료화하기로 합의·실행 (과징금 25억원 부과)
- 11개 손해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2001.6.18)
  - 동양화재해상보험 등 11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특별할증료, 자동차보험 입찰 등을 공동으로 결정·변경 (과징금 85억원 부과)

---

71) 삼성화재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및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

②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

○ 6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02.10.16)

-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가입대가로 총 708건의 보험계약(대부분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최소 1,018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 (시정명령, 범위반공표)

③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

○ 3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2003.12.29)

-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은 정비업체와 정비수가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보험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동 정비업체에 부품을 납품한 부품대리점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경고)

④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 신동아화재보험(주)의 기만적 광고행위 (2005.2.14.)

- 온라인 자동차보험 카네이션을 광고하면서 ‘카네이션 메리트 담보’를 선택할 경우 1년간 무사고시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고 광고함
-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보험료의 7.3~8.3%에 해당하는 추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함

○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의 부당 비교광고행위 (2005.6.22.)

- 자신의 보험상품을 경쟁사 상품의 보험료 및 보상인력과 비교하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오프라인 3사와 비교한 반면 보상인력은 비교적 낮은 온라인 3사와 비교

- 교보자동차보험(주)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2004.9.2.)
  - 자동차보험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재가입율 1위”, “평균 15% 저렴”이라고 광고

#### 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위형

##### (1) 보험료 등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 산업구조,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sup>72)</sup> 사업자단체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소지가 높음
  - ① 현재 27개의 손해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위 3~4개 사업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담합이 용이한 산업구조
  - 상위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최근 4년간 계속해서 70% 이상

<표 40> 주요국의 보험업 집중도 현황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HHI	465	1,116	665
CR1	15.1	24.4	19.7
CR2	32.9	52.7	42.2
CR3	41.1	66.0	45.9

\* 미국 2004년말, 일본 2003.3월말, 영국 1999년말 기준

\* 우리나라와 일본은 개별기관 기준, 영국은 지주회사 기준

72)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음)를 말함

- ② 가격결정 및 상품개발 관련 규제가 많아 규제를 준수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합유인 환경이 조성
- 금융감독기관의 정부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 채널 (사장단회의, 실무책임자회의 등 비공식적 모임, 손해보험협회 등 공식 기관·단체)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정보를 손보험회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공시하는 비교공시제도 등도 담합의 유인을 제공
- ③ 금융당국의 각종 행정지도가 많아 이에 따른 담합가능성 증대
-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중<sup>73)</sup>
    -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진 경우: 원칙적 위법<sup>74)</sup>

73) 2006. 12. 27. 제정하고 2006. 12. 28.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조요청

- 행정지도로 인해 또는 이를 기회로 사업자들이 위법한 카르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도록 협조요청
  - \*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도 교육·안내
- 정책목적상 사업자들에 대하여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한 행정지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 시장경쟁을 대체하는 정책목적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제시
  - \* 비공식적 수단보다는 명시적 방법을 사용
  - \* 사업자간 합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 \*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 범위에 한정
- 구체적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하도록 행정지도(권고, 요청, 장려 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법령 및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

74)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작용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그 행정지도가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②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예시〉

- 업체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에 대한 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지시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 행위 : 위법

〈예시〉

-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2007. 11. 27. 금융사업자(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공정위-금감위간 협약(MOU) 체결
  - 금감위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른 부당 공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해야 함
  - 공정위는 금감위의 소관업무 관련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아니함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업보험<sup>75)</sup> 상당부분을 계열 손해보험사와 계약하는 행위

- 2003년~2006년 10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그룹이 전체 기업보험 2조 8,000억원의 92%인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열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이 지적 ('07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지적 ('08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표 4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그룹의 계열손보사 물량 몰아주기 실태 ('03, '06)

회사 \ 비율	2003년	2006년
삼성	96.2%	97.8%
현대자동차	99.8%	94.5%
현대중공업	95.8%	2.0%
현대	98.4%	99.5%
엘지	89.8%	99.9%
지에스	72.1%	80.8%
엘에스	99.3%	99.6%
한진	96.2%	12.3%
한화	39.6%	68.8%
동부	89.2%	90.3%
전체	91.5%	92.6%

※ 자료 : 2007년 공정위 국정감사 김영주 위원 발표

-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 손해보험사에게 기업보험을 몰아주는 행위를 조사중

75) 화재보험, 기계·장비 책임보험, 수출관련 보험 등



## (3)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리베이트 제공은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영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12월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손해보험사의 리베이트 규모를 추정한 결과 6,844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보험료 대비 4.9% 또는 총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화재보험계약 10건중 8건 가량이 보험료의 평균 30%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

• 보험종목별로 전체건수 중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비율은 화재보험이 80%, 해상보험 50%, 자동차보험 50%, 특종보험 3%, 장기보험 10%, 연금보험 5%

• 원보험료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화재보험이 30%, 특종보험 20%, 장기보험 20%, 자동차 보험 15%, 해상보험 10%, 연금보험 10%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보험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시장의 리베이트 규모는 약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물과 빌딩 등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0~25%, 일반보험은 10~20%, 자동차보험은 6~8%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 (업계의견)

□ 리베이트는 가입회사·임원에 대한 직접지급, 법인카드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

○ 가입회사·임원에 대한 직접지급 사례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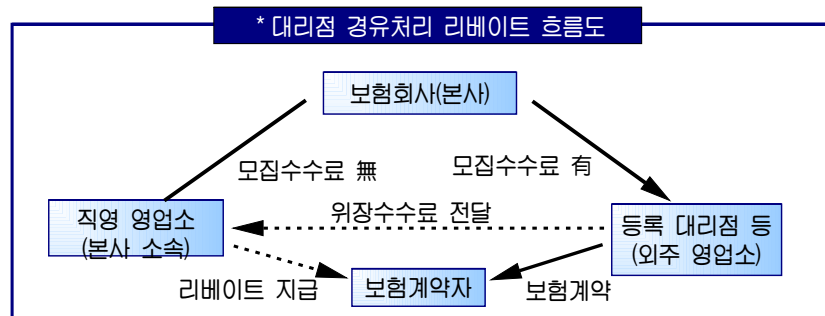
- D사 전무는 160억원 상당의 퇴직보험 가입대가로 35억여원을 받은 혐의 (2002년 6월)

- M회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보험가입 리베이트로 5천만~1억7천만원 수수 (2002년 9월)
- H캐피탈 등 19개 업체에서 2,568억원 상당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사업비 등 명목으로 24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5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H생명 대표이사 등 13명에게 제공 (2002년 4월)
- 보험요율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
  - 대형 위험설비, 고가 기계장치 등 취급업체의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대기업의 화재·재해, 중요기계장치 고장 등으로 보험금 지급시 평가과정에서 보상금액 과대평가후 금품수수

〈사례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

- 석유화학 공장 등 대형 위험설비 취급업체의 보험가액 산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해 주고 대가 수수
- 화재, 산재, 제품생산과정 등에서 사고발생시 보험금 보상액을 과대평가해 주고 보험사 직원과 회사 담당직원이 편법으로 회사자금 횡령 및 금품 수수
-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자금은 보험계약시 대리점을 ‘경유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변칙적으로 자금조성
  - 보험계약자와 보험본사가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을 경유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수료 일부분을 리베이트로 지급 [수수료율(15% 정도)이 높은 대리점 이용]
  - ※ K생명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일시납 보험계약(1건, 95억원)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모집관련 수수료 285백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리베이트 지급 (2002년 8월 적발)
  - ※ 보험사 검사 결과,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경유처리 계약 1600여건, 관련 보험료 238억원을 환원하고 대리점 제재 (2002년 3월 적발)

- ※ D보험사 임원 A씨는 H공사, H중공업, D주식회사의 임직원 3인에게 총660억원 상당의 D보험회사 보험에 가입대가로 합계 3억2천만원의 금품을 제공(2003년 판결)



-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험사업비가 증가되고 이는 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 ※ 2008. 7. 1. ‘보험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중 손보사가 쓰는 사업비는 정해 놓은 기준 2조5천억(적정사업비율 25%, 이윤 2% 제외)을 초과하여 3조(30%)원 이상을 ‘대리점특별이익제공’, ‘타보험종목사업비전가’ 등의 집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손해보험사는 사업비 과다지출로 인한 영업적자 부담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업법에 의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감독·제재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발 및 조치실적이 미비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문제도 존재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금품, 보험료 할인 및 수수료 지급, 과다한 보험금 지급, 보험료·이자대납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및 제202조(벌칙)는 특별이익 제공시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시정·개선조치, 기관 경고·임직원 문책 등으로 조치 [과징금, 고발은 극히 적음]
- ※ 2003년 12월 ~ 2004년 11월 기간동안의 '보험모집질서 검사결과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임직원 문책 42건, 주의 43건, 개선 10건, 일시적 영업정지(보험대리점) 과징금 부과 2건 등으로 고발조치 사례는 없음

&lt;표 42&gt; 특별이익제공 등 관련 검사결과 조치 사례

금감원 조사	주요 조치내용	주요 위법부당행위
H사 등 9개 손보사 (2003.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책 : 8명(임원1, 직원7)</li> <li>조치 : 개선 7건, 주의 16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상해보험 계약제결시 보험료를 임의 산출하여 정상보험료 1,816백만 원보다 1,218백만원 할인</li> </ul>
S사 (2004.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책 : 2명(임원1, 직원2)</li> <li>조치 : 개선 1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보험료 1,372백만원보다 396백만원의 보험료 할인</li> </ul>
D사 (2004.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 주의적기관경고</li> <li>문책 : 6명 (임원2, 직원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의 퇴직보험료 78억원 인수시 보험료 47백만원 할인</li> </ul>
D사 (2004.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책 : 2명</li> <li>조치 : 개선1, 시정2, 주의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점에서 월말실적 수금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12,168천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 제공 등</li> </ul>
D사 등 10개 손보사 (2004.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부과 : 2개 보험사</li> <li>문책 : 6명</li> <li>조치 : 개선1, 주의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통신기기를 일반기계로 분류하여 2년동안 270백만원의 보험료 할인 등</li> </ul>
B사 등 대리점 검사 (2004.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 : 대리점 등록취소</li> <li>업무정지 30일~90일</li> <li>5백만원 과태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보험계약 4,644건의 3,49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283백만원의 상품권 등 제공</li> </ul>

- 손보협회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한 조사는 법령이 의한 위임 없이 수행되고 있고 조사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문제를 초래
- 동 조사는 손보협회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하여 수행
- 손보협회내에 설치된 3~4개의 조사팀(협회 1명, 보험사 2명)의 구성원 일부가 보험사 직원으로 편성
- 손보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서 회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상 한계가 있음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보험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 제 점	권 고 안
○ 손보협회가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권한없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팀 구성시 업계 직원이 포함되는 등 조사권한 및 조사공정성의 문제가 있음	○ 특별이익 제공 등 중요하거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금감원이 직접 조사·처리하도록 절차 등 마련
※ 2004년 손보협회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73건중, 무혐의가 46건이고 제재건수는 25건(제재금 2천 2백만원, 포상금 687만원)	- 손보협회에 신고된 경우, 금감원에 이첩
○ 동일사례에 대한 금감원과 손보협회의 처분이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	○ 손보협회의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하여 조치의 형평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4) 방카슈랑스 관련 은행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소수 은행의 과점체제로서 보험사-금융기관보험 대리점 계약시 보험사가 은행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어려움
- 따라서 은행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감원이 발표한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계약서 점검결과 조치(2003. 9. 23.)」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등 대행업무 하자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해지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행업무 수행중 하자 발생시에는 보험회사에게 조사권 등을 일체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자발생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과실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입증토록 함

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중과실 및 상담착오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함

예> “양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제가 3회 이상 상정되어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합의 실패의 정당성 유무를 묻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지권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수수료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

예> 제휴계약 해지로 더 이상 보험대리점이 아닌 상황에서 제휴계약 해지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기존에 유지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등 대행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계속해서 수수하는 등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강제 구입하도록 함

### 3. 소비자 보호 이슈

#### 가. 소비자피해 청구 현황

-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상담 건은 3,714건으로 전년 4,854건 대비 23% 감소한 반면 피해구제 청구 건은 509건으로 전년 391건 대비 30.2% 증가
- 피해구제 청구 건 중, 자동차보험 관련이 245건(48.1%), 장기손해보험 관련이 189건(37.1%) 차지

<표 43> 연도별 상담·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상담	6,146	5,185	4,294	4,384	4,436	4,556	4,854	3,714
피해구제	578	439	375	354	356	392	391	509

※ 자료 :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표 44> 손해보험 종류별 피해청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	보종보험	기타보험	계
2006년	183 (46.8)	5 (1.3)	31 (7.9)	157 (40.2)	6 (1.5)	3 (0.8)	6 (1.5)	391 (100.0)
2007년	245 (48.1)	6 (1.2)	33 (6.5)	189 (37.1)	6 (1.2)	4 (0.8)	26 (5.1)	509 (100.0)
증감	62 (33.9)	1 (20.0)	2 (6.4)	32 (20.4)	-	1 (33.3)	20 (433.3)	118 (30.2)

※ 자료 : 2007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

- 피해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등 보험 지급단계(349건, 68.6%)에서 가장 많았고, 고지의무 위반 등 보험 체결단계(140건, 27.5%), 실효 등 보험 유지단계(20건, 3.9%)로 나타남

&lt;표 45&gt; 피해유형별 현황

피 해 유 형			피해건수	비율(%)
보험 체결단계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3	0.6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2	2.4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8	1.6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20	3.9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22	4.3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11	2.2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	-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2	10.2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12	2.4
	소 계		140	27.5
보험 유지단계	부당하게 계약변경을 권유한 경우		-	-
	실효 및 부활		20	3.9
	명의로용으로 인한 대출		-	-
	모집인 보험 횡령		-	-
	보험료 지급방법 등		-	-
	소 계		20	3.9
보험 지급단계	보험금 산정 등		349	68.6
합 계			509	100.0

※ 자료 :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나. 주요 소비자 이슈

(1) 보험 불완전판매<sup>76)</sup>

- 홈쇼핑, 온라인,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보험판매(방카슈랑스)가 증가하면서 계약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소위 “불완전판매”가 증가
-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전체 분야의 피해구제사례(1,126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사례(280건)가 24.9%를 차지<sup>77)</sup> [생명보험 207건, 손해보험 73건]

## 〈유형별 피해사례〉

- \* 보험가입시 자필서명 누락 : 49건(17.5%)
- \*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 15건(5.4%)
- \* 계약의 중요내용 미고지, 사실과 다른 고지, 단정적 고지 209건(74.6%)
- \*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가 7건(2.5%)
-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202건(72.1%), 전화권유 판매가 57건(20.4%, 홈쇼핑이 10건(3.6%), 방카슈랑스가 11건(3.9%)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불완전판매가 대부분을 차지

&lt;표 46&gt; 판매방법별 불완전판매 현황

(단위: 건, %)

구 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방카슈랑스	계
건수	202	57	10	11	280
%	72.1	20.4	3.6	3.9	100.0

76) 불완전 판매(improper sales or mis-selling)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77)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8.

- 2008년 8월 보험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소비자의 방카슈랑스 보험 가입 형태 및 구매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은행의 연계 또는 강압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방카슈랑스 상품을 가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은행의 업무를 보다가 권유받은 경우가 53%(151명), 대출을 받다가 가입한 경우가 7%(20명)
    - 합법적으로 보험전용 창구에서 가입한 경우는 20.7%(59명)에 불과하고, 62.8%(179명)가 보험창구가 아닌 예금이나 대출창구에서 가입
  - 현재 방카슈랑스 상품의 가입권유시 법이 정한 3가지 이상 상품을 설명 받은 경우는 15.1%에 불과하며, 상품 설명 후 가입시간이 30분 이내가 71.6%
    - 소비자 스스로도 64.5%가 제공받은 정보가 조금(51.9%) 또는 매우(12.6%) 부족하다고 평가함
    - 방카슈랑스 가입 후 51.6%가 후회한다고 답했으며, 너무 촉박하게 설명을 들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37.4%가 답변
  - 보험협회가 발표한 「방카슈랑스 판매실태(2007. 9. 7.)」에 따르면 10명 중 3~4명은 가입시 약관도 못 받았고 권유 및 설명에서 서명까지 평균 19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업법에서 충분한 자료제공 의무 및 제재근거를 마련
- 보험업법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동법 제209조(과태료)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상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 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 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손해보험협회는 2008년 4월 「완전판매 추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2008. 7. 10. 협회 및 업계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추진 상시점검반”을 협회에 설치

- 상시점검반의 ① 각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완전판매 개선 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지원 및 ② 부실판매 등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상시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실시
- 2008년도 하반기 청약단계시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청약서 부분 및 약관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에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중

(2) 은행대출과 연계한 보험판매 (구속성 보험계약)

-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대출에 보험을 끼워파는 소위 “끼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 9. 7.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가 발표한 「방카슈랑스 판매실태」<sup>78)</sup>에 따르면 비자발적 가입이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판매 22%가 대출과 연계되었고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답변
  - 2005. 5. 3. 금융감독원 'FAQ 코너 등록자료'에 따르면 '구속성 보험 계약'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
    - 주택 등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
    - 대출연장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신용도가 불량하거나 개인별 한도를 초과한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승인해 주면서 보험가입을 요구
    - 대출 우대금리 제시를 통한 기업성 보험의 가입을 요구 등

78)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조사 실시

□ 보험업법 제100조에서 대출연계 보험판매행위를 금지

- 대출연계 보험판매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함

※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3) 상해보험 중복가입 관련

□ 실손보장형 손해보험상품은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함

예) 2개의 실손형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고로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600만원이 아닌 300만원만 보상

-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중 가입에 따른 소비자피해 야기

※ 최근 금감원이 보험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손해보험사에 지시하였고 손보협회는 보험가입전에 중복가입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중복가입여부 확인가능)

### (4) 자동차보험 인수거절 관련

□ 장기무사고 운전자,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 경미한 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인수거절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할인·할증률, 연령, 차량연식 등의 보험 인수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나, 소비자에게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구체적인 인수거부 사례로는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걸어 보험료를 올려 받는 행위 등이 있음
- ※ 2007. 1. 2. 금감원이 손보사에 공문을 통해 사고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경력자를 제외한 운전자에게 보험 인수 거절을 하지 않도록 지시

(5) 보험사, 협회, 홈쇼핑 채널 등의 보험상품 과장광고

- 과장광고를 통해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 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 불만을 초래
  - 2003. 1. 21.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2개사<sup>79)</sup>가 모두 인터넷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금감위가 발표한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2007. 10. 3.)」에 따르면 최근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장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예>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 예>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

79)생명보험 21개사와 손해보험 11개사

- 2007년 10월 “5개 TV홈쇼핑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sup>80)</sup>”에 따르면 방송 대부분이 혜택과 장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환급이 안되는 경우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허위·과장광고 예시>

- \* 만기시 전액 100% 환급, 무진단·무심사로 가입, 한번 가입으로 보장은 평생, 만능 종합보험, 별도 특약 없이 모든 보장, 입원비가 최대, 보장 축소·보험료 인상 임박, 보험료 납입 유형을 밝히지 않는 문지마 가입 유도

####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현황>

-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판매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점차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47> 연도별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현황, 금감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년 상반기
건수	-	59	234	329	205

<표 48>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소비자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손해보험	1	18	72	91	59

<표 49> TV 홈쇼핑보험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소비자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손해보험	0	0	3	3	0

80)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표

- 손보험회에서 광고심의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 부족 등으로 부당광고 방지에 한계
  - 손보험회는 판매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권한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을 가지며 이를 위해 2006년 5월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용 중
  -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 ③협회는 보험회사의 광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사전에 광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회사의 보험상품 판매광고를 간행물 및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제작·배포한 경우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함
    -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손보험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법률전문가, 시민단체전문가, 학계전문가, 금감원 팀장, 회원사 임원 등 7명으로 구성)을 둠
    -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 예)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의 표현
    - 광고심의위원회는 손보험회에 광고물의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손보험회는 부당한 광고적발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할 의무가 있음
    - 규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게시·배포 중지 등의 조치 및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
    -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등 판매광고시 준수사항을 규정



- 손보협회의 최근 3년간 광고심의 실적은 점차 증가추세

&lt;표 50&gt; 최근 손보협회의 광고심의 현황

(단위: 건 수)

구 분	심의건수	원안	조건부승인(수정)	부적격
2006.6.~2006.12.	314	55	256	3
2007.1.~2007.12.	1,007	567	369	71
2008.1.~2008. 9.	849	652	107	90
계	2,170	1,274	732	164

- 손보협회는 과장광고 1건에 대해 제재금(CJ홈쇼핑 카탈로그)을 부과한 바 있으나 광고에 대한 사후규제 근거는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및 「보험상품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음 (표시광고법 제15조)

## ※ 표시광고법 제15조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모집조직(설계사·대리점)을 위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 금융감독원, 2007.
-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월간 손해보험, 2008. 8.
- 금융감독원,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보도자료, 2006. 2.
- 이석호,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 금융감독원,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보도자료, 2006. 2.
- 류근옥,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겸업화와 손보사의 대응방안, 월간손해보험, 2006. 6.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의 새로운 접근방식, 금감원 및 한국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움, 2007. 11.
- 금융감독원, “최근 세계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08. 8.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보도자료, 2007. 12.
-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Supreme Court, 1993)
- Quality Auto Body v. Allstate insurance Company, 455 U.S. 1020, 102 S.Ct. 1717 (1982).
-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7.
- 정호열, 한국 보험시장에 있어서 반독점정책의 전개, 한국보험학회, 2003. 12.
-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월간손해보험, 2008. 8.
- 이재복, 국내 유사보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월간손해보험, 2008. 6.
- 양희산, 보험산업의 경쟁촉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1999. 11.
- 이계화, 온라인 금융기관의 현황 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9.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2006. 10.

- 손해보험협회,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손해보험산업 발전방안, 2008. 8.
- 이병래, 2008년 손해보험 감독정책 방향, 월간손해보험, 2008. 1.
- 안철경,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08. 4.
-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World insurance in 2007, No 3/2008.
- 정세창,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슈랑스 적정 운영 방안, 한국보험학회, 2007. 9. 5.
- 국가청렴위원회,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 2005. 11. 2.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2005. 4. 24.
- 정호열, 보험산업과 공정거래법, 경쟁저널, 2008. 1.
- OECD, Competition and related regulation issues in the insurance industry, 1998. 12.
- 이태열, 200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개발원, 2006. 11.
- 정세창,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2001. 12.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2008. 8. 4.



## 손해보험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

인 쇄 : 2008년 12월

발 행 : 2008년 12월

발행인 : 백 용 호

발행처 : 공정거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인 쇄 : 문중인쇄(주) / 02) 503-7764

---

\* 본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과(전화: 2023-4258, FAX: 2023-42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판매가격 5,000원